기로에 선 남북관계

metro®
메트로 2015년 8월 24일 월요일 제3285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dex <21일>

코스피 1876.07 (-38.48)

코스닥 627.05 (-29.66)

금리(국고채 3년) 1.71 (변동없음)

환율(원·달러) 1194.00 (+4.00)

세마리 토끼잡기

SK 최태원 회장 석방 직후부터 광폭행보 경영정상화·창조경제·사회공헌에 동분서주

최태원 회장(사진)이 동분서주하면서 SK그룹이 경영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경제위기극복과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최 회장은 창조경제혁신센터(창조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과 사회사업에도 힘을 쏟고 있다. 기업위주의 성장 정책에 주로 초점을 맞췄던 기존 재벌 총수들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재계는 최 회장이 추진하는 경제발전 성장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23일 SK그룹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4일 출소 후 쉼 없이 그룹 안팎의 업무를 챙기고 있다.

최근 최 회장은 현장경영에 여념이 없다. 주요계열사를 잇따라 방문하며 임직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최근 1주일 동안 대전, 이천, 울산 등 약 3000㎞의 거리를 오가며 그룹의 주요 사안을 직접 챙겼다.

최 회장의 속도전은 당분간 계속될 예정이다. 25일에는 이천 SK하이닉스 M14 준공식에 참석해 이미 밝힌 46조원 투자의 청사진을 공개할 전망이다. M14 생산라인은 SK하이닉스가 기존 생산공장인 M10을 대체하기 위해 2조3800억원을 투자해 조성하는 시설이다.

이어 최 회장은 이달 말까지 SK텔레콤을 포함한 계열사 본사와 그룹 계열사의 주요 사업장을 모두 돌아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의 현장경영은 해외까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SK그룹 해외 거점인 동남아, 중국, 미국, 중남미 사업장에서 잇달아 경고음이 울리면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계는 최 회장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한동안 움츠렸던 SK그룹 해외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무 복귀 후 최 회장이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는 창조경제다. 최 회장은 지난 18일 SK그룹이 후원하는 대전·세종 창조경제센터를 찾아 현황을 면밀히 살폈다. 이 자리에서 최 회장은 벤처기업대표들과 격 없는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최 회장은 "SK그룹과 윈-윈 모델을 구축하면서 창조경제 생태계를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며 "대전센터가 과학기술을 활용해 손쉽게 창업을 할 수 있는 벤처기업인의 요람이자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구심점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영농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는 세종센터를 둘러본 최 회장은 "농업이 첨단산업을 만나 새로운 혁신을 만들어 가는 것이 농촌형 창조경제 현장"이라며 "이런 모델이 전국과 해외로 확산될 수 있도록 농업의 첨단 산업화를 구현해 나가자"고 했다.

최 회장은 SK가 후원하지 않는 충북·울산·대구창조경제센터 등도 둘러봤다. 그룹 총수가 다른 기업이 후원하는 창조경제센터를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SK는 "SK가 지원하는 곳은 (최 회장이)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센터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야 향후 대전·세종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직접 보고 배우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이 스타트업 육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에 열정을 쏟으면서 그룹도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앞서 SK그룹은 고용디딤돌과 청년 비상 프로그램을 가동해 2016년부터 2년간 4000명의 인재를 육성하고 2만명의 창업교육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사회공헌 사업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SK그룹은 최근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 주거복지 해결을 위해 향후 3년간 총 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SK그룹은 국가 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후손 등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했다.

SK그룹은 올해 200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 400억원, 2017년 400억원을 기부할 계획이다. 이 돈은 정부가 지정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익단체에 기부된다. 세부 시기는 정부와 협의해 결정한다.

SK그룹이 저소득층의 노인복지 문제에 주목한 것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만들어 오는데 기여했으면서도 △적절한 사회적, 경제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채 △오히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최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확대경영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뤄온 선배세대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SK가 기여해야 하는 것이 광복70년의 의미"라며 "이와 관련한 대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조한진 기자 hjc@metroseoul.co.kr

41억 챙기기

신한지주 한동우 회장 상반기 고액보수 논란 작년 "연봉 40% 깍겠다" 약속… 결국 헛말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사진)이 지난해에 '연봉 40% 삭감'을 약속했지만 올해 상반기에 41억원 이상을 챙기는 등 실제 보수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23일 금융원에 따르면 한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8억29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는 매달 약 6700만원씩 4억원이고 지난해 연간 성과에 따라 올해 1분기에 지급된 연간성과급이 4억2900만원이다.

앞서 한 회장은 지난해 상반기에 8억32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6개월간 급여 4억원과 2013년도의 회사 성과에 따라 지난해 1분기에 지급된 연간성과급 4억3200만원이 포함된 규모다.

이에 앞서 신행금융지주 측은 지난해 2월 "최근 이사회에서 임원 보수 삭감 방안이 마련됐다"며 "한 회장이 연봉의 40%를 삭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는 지난해와 차이가 거의 없다.

한 회장의 연봉 40% 삭감 발표는 '헛구호'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게다가 한 회장은 올해 1분기에 회사의 장기성과(2011~2014)에 따라 지급이 확정된 과거 3년(2011~2013)간의 누적 장기성과금 명목으로 17억500만원을 받았다.

또 과거 3년간의 장기 경영성과를 평가해 실적에 따라 경영진에게 주식을 지급하는 누적 장기성과 연동형 주식보상 명목으로 주식 3만6288주(약 16억원)도 챙겼다.

한 회장의 올해 상반기 보수 총액은 무려 41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신한금융지주 관계자는 "(성과금에는) 작년에 그룹의 당기순이익이 2조811억원으로 전년대비 9.6% 상승한 점 등이 주요하게 반영됐다"면서 "따뜻한 금융의 내재화를 위해 다양한 과제가 수행된 점과 글로벌 현지화 및 신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한 점, 은퇴비지니스 추진 차별화를 위해 노력한 점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금융지주는 지난 3월 25일에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30억원이던 이사의 보수 한도를 45억원으로 인상해 눈총을 샀다.

신한금융지주는 지난해 금융지주 회장들의 고액 연봉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자 이사 보수의 한도를 6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낮췄다.

/백아란 기자 alive0203@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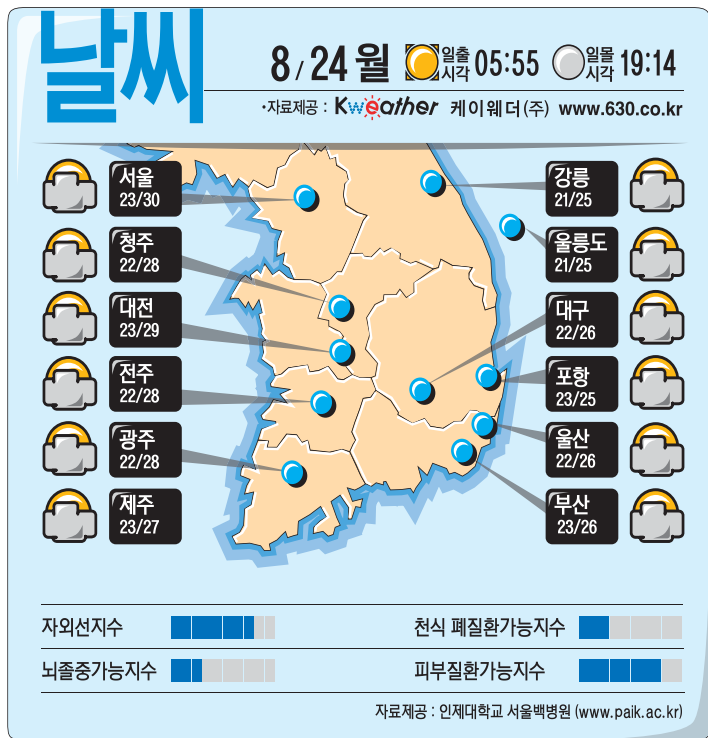
날씨

8/24월 일출시각 05:55 일몰시각 19:14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0.co.kr

지역	기온	지역	기온
서울	23/30	강릉	21/25
청주	22/28	울릉도	21/25
대전	23/29	대구	22/26
전주	22/28	포항	23/25
광주	22/28	울산	22/26
제주	23/27	부산	23/26

자외선지수 / 천식 폐질환가능지수 / 뇌졸중가능지수 /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국제

▲ 톈진항 화학물질 창고에서 발생한 대폭발이 수습되기도 전에 또 비슷한 사고가 중국에서 발생했다. 중국 신화통신과 제노만보 등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40분(현지시간)께 중국 산둥성 쯔보시 헝타이현의 한 화학공장에서 **폭발**이 일어났다.

▲ 북한이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한 화력쇼를 보였다.

▲ 중국이 다음달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과 조기경보기 쿵징-2000, 베일에 싸인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기인 젠-20을 선보일 예정이다.

▲ 세계적인 불륜 알선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해킹자료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되면서 **불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 암스테르담 발 파리행 고속 열차에서 **이슬람과격단체** 소속의 무장 테러범을 맨몸으로 진압해 피해를 최소화한 3명이 미국인 관광객들로 알려졌다.

산업·경제

▲ **최태원** 회장이 동분서주하면서 SK그룹이 경영에 탄력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경제위기극복과 창조경제 발전을 위해 분 단위로 시간을 쪼개며 전국을 누비고 있다.

▲ **현대자동차**가 미국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에쿠스·제네시스·그랜저(수출명 아제라) 등 프리미엄 세단 판매량이 저조해 세단 라인업 다변화에 적신호가 켜졌다.

▲ **삼성전자**가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15'에서 금상 1개, 은상 3개, 동상 4개 등 8개의 본상을 수상해 최다 수상 기업에 선정됐다.

▲ **홈플러스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24일 실시된다.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을 통과한 해외 서모펀드(PEF) 칼라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골드만삭스PIA,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 주요 **식품업체**들이 올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 백화점 업계의 **가을 맞이**가 한창이다. 갤러리아백화점은 명품관에 신규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고 패딩과 아우터 등의 카테고리 킬러 브랜드를 강화한다. AK플라자는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와 아동 스포츠 브랜드를 확대한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3일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우려해 자금 회수에 들어간 탓이다.

정치·사회

▲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중인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50여 척을 움직였다. 최전방 포병 전력도 2배로 증가했다. 군 당국은 이를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로 맞섰다.

▲ **남북 2+2 고위급 접촉**이 당초 예정됐던 오후 3시보다 약 30분 늦은 시간에 시작됐다. 회담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우리측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 북측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과 김양건 대남담당 당 비서가 대표로 참석했다.

▲ 북한이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평양 시내 모습은 평온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북한의 언론매체가 남한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뜨리며 **선전공세**를 펼치고 있다. 북한의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괴뢰군 사병들이 병영을 탈주하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며 청년들은 괴뢰군 입대를 기피해 다른 나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선전했다.

▲ 행정자치부는 과도한 빚을 진 **지방공기업** 26곳이 2017년까지 부채 총 8조4000억원을 줄이기로 했다.

▲ 수술 뒤 출혈이 멈추지 않는 산모를 신속하게 종합병원으로 옮겨 치료받도록 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했다면 담당 의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이른바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찰이 후속조치로 단계별 수사지침을 마련했다.

▲ 검찰이 5개월 넘게 화력을 집중한 **포스코 수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출구전략 마련도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더 대담해진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

도발당일 최고위기 직행
협상 카드도 동시에 제기
공포정치에 참모진 입 묶여

김정은 시대에 들어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과거보다 훨씬 대담해졌다. 포격 도발 당일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는 초강경 도발로 인해 김정은 시대 한반도의 앞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벼랑 끝 전술'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고 협상에서 상대의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고의로 위기상황을 조성하는 협상 전술이다. 북한은 과거 김정일 시대 미국과의 북핵 협상과정에서 이 전술로 악명을 떨쳤다. 하지만 김정일 시대 북한의 협상 전술은 단계적으로 위기수준을 높이는 방식이어서 상당 부분 예측이 가능했다.

1993년 이래 약 20년간 북핵 위기가 이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북한의 행태에서 일정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다. 1993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통보했던 북한은 다음해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했다. 이후 고농축우라늄 프로그램이 문제가 되자 북한은 2002년 12월 핵동결 해제를 선언하고, 한달 뒤 다시 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는 주변국이 6자회담을 시작하는 계기가 됐다. 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양보를 끌어내는 방식이 반복된 것이다.

또 북한은 6자회담에서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감행해 '2·13합의'를 끌어냈다. 다시 협상이 벽에 막히자 2009년 4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고, 같은 해 5월 '제2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위기수준을 단계적으로 올리면서 상대방과의 합의를 끌어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번 포격 도발에서 북한의 이 같은 단계적인 '벼랑 끝 전술'은 사라졌다.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포격 도발에 나선 뒤 당일 밤 노동당 중앙군사위 비상확대회의를 열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도발 당일 전면전을 불사하는 최고의 위기 상황으로 직행한 것이다.

북한은 20일 남한에 대한 포탄 도발 사실을 부인하면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주재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 선포를 결정했다. /연합뉴스

북한은 상대방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움직임도 과거와는 달리 도발과 동시에 함께 진행했다. 김양건 대남비서는 자신들의 포격 직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현 사태를 수습하고 관계개선의 출로를 열기 위해 노력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보냈다. 북한의 2인자로 꼽히는 황병서 북한군 총정치국장은 카운터파트너인 김 실장과 도발 이틀만에 마주할 수 있었다.

북한은 회담이 진행되는 도중에 위기수준을 더 끌어올렸다. 바다에서는 잠수함을 출동시키고, 육상에서는 최전방 포병 전력을 배로 늘렸다. 포격 도발 이후 북한군이 보인 일련의 움직임은 한미 양국의 예상을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미 양국에서는 연합 지휘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위기 확대를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북한 정권 내부는 김정은의 공포정치로 전문성을 지닌 참모진의 입이 묶인 상황이라 북한 1인자의 독단에 한반도의 운명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이로 인해 김정은식 '벼랑 끝 전술'에 대한 우려와 함께 한반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북 화전양면… 회담하면서 전방위 도발 위협

잠수함 출동·포병 증강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북한이 잠수함 50여 척을 움직였다. 최전방 포병 전력도 2배로 증가했다. 군 당국은 이를 전형적인 화전양면 전술로 판단하고 최고 수준의 대비태세로 맞섰다.

북한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동·서해 잠수함 기지의 77척 중에서 50여 척의 잠수함을 대거 출항시킨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 군은 서해와 동해에서 기동하는 북한의 잠수함 위치가 정확하게 식별되지 않자 정보자산을 대거 동원했다.

군 관계자는 23일 "북한 잠수함의 기지 이탈률이 6·25전쟁 이후 최대 수준"이라며 "이처럼 잠수함을 대거 기동시키고 위치마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천안함 폭침 사건은 북한 잠수함의 소행으로 결론내려졌다. 당시 사건에 앞서 북한의 잠수함 동향을 놓친 일이 드러나면서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우리 군으로서는 북한 잠수함 동향이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북한은 이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는 육상의 휴전선 일대에서는 갱도에서 밖으로 나와 명령만 내리면 즉각 사격할 수 있는 상태의 북한군 포병전력이 고위급 접촉 시작 전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북한은 앞서도 화전양면 전술을 수차례 벌여왔다. 지난해 10월 4일 인천아시안게임 폐막식 때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김양건 노동당 비서를 전격 파견한 후 그해 10월 말~11월 초 고위급 접촉 재개에 합의했다. 당시 남북 간 대화 분위기는 한껏 고조됐다. 그러나 북한은 곧바로 서해 북방한계선(NLL) 교전, 비무장지대(DMZ) 인근 대북 전단 사격 등의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사실상 무산됐다.

/윤정원 기자 garden@

휴전선 '준전시상태' 선포에도 평양은 평온

북한이 전방지역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며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평양 시내 모습은 평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현지에서 취재 활동을 하고 있는 AP통신에 따르면 북한이 최전방에서 준전시상태에 돌입했던 지난 22일 평양 시내는 평소와 다름 없는 평온한 일상이 이어졌다. AP통신은 "시내 곳곳의 상업시설은 평소대로 운영됐고 주민들은 여름 뙤약볕을 피해 파라솔 아래서 휴식을 취했다. 길거리의 아이스크림 가게는 사람들로 붐볐다"고 전했다. 평양 능라도 5·1경기장에서 전날 개막한 2015 제2회 국제 유소년 U-15(15세 이하) 축구대회도 별다른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공산당의 대외적 입장을 대변하는 환구시보의 평양특파원이 전한 소식도 마찬가지였다. 환구시보는 "상점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이 없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여느 때와 같이 사람들이 질서 있게 줄을 서 있었다"고 전했다.

같은 날 오전 9시부터 정규 방송을 시작한 북한 조선중앙TV도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소집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비상확대회의 소식만을 다뤘다. 이밖에 주민들의 긴장을 조성하는 내용은 담지 않았다.

대북 소식통들 역시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와 관련해 주민들을 동원한 북한 당국의 전쟁연습은 없는 상태며 주민들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의 청년들이 인민군 입대를 자원하고 나선다는 북한 매체의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 평양의 일상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이야기다. 북한이 최전방에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실제로 전면전에 돌입하려는 의도가 없다는 방증으로 읽힌다.

/윤정원 기자

한반도 위기 속 자위대 화력쇼

아베, 북·일 전쟁 가능 주장

북한이 포격 도발에 이어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반도의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자위대는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한 화력쇼를 선보였다. 일본의 가상적국에는 북한도 포함돼 있다. 최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를 위한 안보관련 법안을 설명하면서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소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지난 22일 일본 후지산 자락에서는 일본 자위대의 후지종합화력연습이 실시됐다. 이 훈련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분쟁을 염두에 둔 낙도 탈환 훈련이다.

자위대는 훈련에서 정찰부대가 적의 동태를 파악한 뒤 함선과 수송헬기를 동원해 자위대를 섬에 투입했다. 이어 육상·해상·항공 자위대가 첨단장비를 동원한 합동작전으로 적을 섬멸해 섬을 되찾았다. 이 과정에서 74식 전차 등 일본 자위대의 주력화기가 불을 뿜고 중거리 유도탄이 발사되는 등 실탄 사격이 실시됐다.

일본 자위대는 현재 동남아시아에서 미군과 합동훈련을 실시하는 등 본격적으로 군사행동을 개시했다. 아베 총리가 추진 중인 안보관련 법안이 일본의 참의원을 통과할 경우 자위대는 센카쿠 분쟁에서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을 넘어 북한과의 전쟁까지도 가능해진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6월 18일 중의원에서 북한과의 전쟁 시나리오를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북·일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일본에 '도쿄를 파멸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겠다'고 적의를 표명한 뒤 병력과 함대를 집결시킨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 근해에서 경계하던 미 함선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은 자위대의 무력을 행사한다는 게 골자다. 아베 총리는 미국과는 별개로 북·일 간 본격적인 전쟁으로 이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위대의 화력쇼가 펼쳐지던 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방 강연에서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면 국민의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 법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정말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병형 기자

군사력 뽐내려는 中… 최신 핵미사일 공개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
美 미사일방어체계 도전
군사대국 면모 과시할 듯

중국 인민해방군 여군들이 9월 3일 열리는 전승절 열병식을 위해 지난 22일 베이징에서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다음달 3일 톈안먼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항일승전 70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둥펑-41과 조기경보기 쿵징-2000, 중국의 차세대 스텔스기인 젠-20을 선보이며 미국에 맞서는 군사대국의 면모를 과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핵미사일 등 전략미사일을 대거 공개해 미국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계(MD)에 정면으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이번 열병식에는 역대 가장 많은 미사일 모델이 등장한다. 모두 6개 열병부대로 구성된 전략미사일 부대(제2포병)가 7종의, 최소 100여기 이상의 미사일을 동시에 선보인다. 1984년, 1999년, 2009년 열병식과 비교했을 때 전례가 없는 규모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대규모의 미사일이 등장했던 2009년 열병식에서 5종, 108기의 미사일이 선보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통신은 특히 미사일 종류와 관련해 "원거리·중거리·근거리, 핵·일반(재래식)·신형 미사일을 아우르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두고 차세대 ICBM인 둥펑-41을 비롯한 다수의 최신형 전략 핵미사일이 공개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둥펑-41은 최대 사정거리가 1만4000㎞로 중국 동해안에서 발사할 경우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수 있다. 특히 목표물을 공격하는 핵탄두 10개(총중량 1200㎏)를 동시 탑재해 각기 다른 목표를 향해 비행할 수 있는 다핵탄두미사일(MIRV)이다. 미국의 MD를 무력화시키는 미사일로 평가받는다.

이번 열병식에서 쿵징-2000과 젠-20과 같은 첨단 공군전력도 주목 받고 있다. 쿵징-2000은 5000~1만m 상공에서 반경 400㎞ 이내의 목표물 수십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 중국 동북부는 물론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을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중국 스스로 미국의 E-767를 능가한다고 자신하고 있다.

쿵징-2000은 2009년 건국절(10월 1일)에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지만, 젠-20은 아직까지 베일에 싸여 있다. 당초 외부에서는 2020년쯤 개발이 가능하다고 전망했지만 이미 시험비행까지 마친 상태다. 현재 실전 배치된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랩터)에 맞서기 위한 중국의 야심작이다.

열병식은 중국이 자체 개발한 무기로 100% 채워진다. 이 가운데 84%가 신무기이다.

과거 중국의 열병식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경우가 많았다. 1949년 건국절에 열린 열병식은 마오쩌둥의 1인자 위치를 확인시켰고, 1900필의 백마 기병대로 화제가 된 다음해 건국절 열병식은 한국전쟁 참전으로 이어졌다.

문화대혁명으로 24년간 중단됐다가 1984년 덩샤오핑이 부활시킨 이래 부정기적으로 열려 온 열병식은 이번 행사로 이른바 G2로 우뚝 선 중국의 위상을 과시한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게 된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애슐리 매디슨 해킹… 글로벌 폭로협박 몸살

백악관·펜타곤서도 '클릭'
일반인 협박·이혼문의 쇄도

세계적인 불륜 알선 사이트인 애슐리 매디슨의 해킹자료가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되면서 불륜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커집단인 '임팩트팀'이 두 차례에 걸쳐 공개한 회원 정보에는 백악관을 비롯한 미국 정부기관에서 사용하는 이메일 계정이 1만5000여개나 발견됐다. 여기에는 백악관 대통령실 정보기술 관리자, 법무부 국장·수사관·변호사, 국토안보부 소속 해커와 대테러 대응팀원, 미국 연방 검사보 2명 등의 명단도 있다.

또 국방부 본부를 비롯한 국방부 인터넷망에서도 애슐리 매디슨에 접속한 흔적이 수백 건이나 됐다. 업무용 컴퓨터를 불륜 사이트 접속에 사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국방부 메일 계정을 사용한 명단을 검토하고 있다. 통일 군사 재판법에 따라 간통은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 뿐만 아니라 미국 각지의 지자체에서도 공무원이 업무용 메일 주소로 애슐리 매디슨에 가입한 것이 확인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폭로 협박을 받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 BBC방송에 따르면 영국에서도 여성의원과 국방연구소 고위 과학자 등 수백명의 공직자가 애슐리 매디슨 회원 명단에서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법률사무소에 이혼 문의가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회원정보를 토대로 한 업체에서 작성한 이른바 '불륜지도'에서 한국도 미국, 영국, 이탈리아처럼 많은 가입자가 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병형 기자

열차 학살 막은 美 영웅 3총사

파리행 고속열차서
무장괴한 맨손 진압

왼쪽부터 맨손으로 열차 학살을 막은 스펜서 스톤, 앤소니 새들러, 알렉 스칼라토스.

프랑스에서 맨손으로 열차 학살을 막은 미국인 관광객 3명이 전세계적인 영웅으로 떠올랐다.

23일 CNN에 따르면 지난 21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발 파리행 고속열차에서 이슬람 과격단체 소속의 무장 괴한을 맨손으로 진압한 이들은 관광 중이던 미국인 3명이었다.

당시 무장 괴한은 AK-47 자동소총, 권총, 예리한 칼 등으로 무장하고 있었다. 그는 자동소총 탄창 9통을 가지고 있어 최소한 200명을 살상할 수 있었다. 열차가 벨기에를 지날 때 화장실에 가다 무장 괴한과 마주친 프랑스인 한명이 먼저 제압을 위해 달려들었다. 이 과정에서 총이 발사돼 차창이 깨지고 한 승객이 총알에 맞아 부상했다.

프랑스인을 뿌리친 괴한은 다시 앞으로 나아갔다. 이때 열차에 타고 있던 미국 오리건주 주방위군 상병 알렉 스칼라토스와 미 공군 일병 스펜서 스톤, 그리고 이들의 친구인 새크라멘토 주립대학생인 앤소니 새들러가 매복해 있다가 한꺼번에 괴한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스톤은 괴한이 휘두른 칼에 머리와 목을 다치고, 엄지손가락이 거의 절단될 정도의 상처를 입었다. 그는 부상하고도 친구들이 괴한을 제압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들이 괴한을 막지 못했다면 열차 안에서 대학살이 벌어질 상황이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들을 "영웅들"이라고 부르면서 직접 전화를 걸어 이들의 용기를 치하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용기를 치하하면서 24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영국의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괴한의 이름은 아유브 엘 카자니(25)로 모로코 출신이다. 그는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등 유럽에서 생활하다가 지난해 시리아로 가 이슬람국가(IS)로부터 군사훈련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는 석 달 전 유럽으로 돌아와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IS에 대한 지지를 공개적으로 밝혀와 스페인, 프랑스, 독일, 벨기에 정보당국이 수개월째 주시하던 인물이었다.

특히 그는 지난 1월 프랑스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 테러 이후 벨기에에서 테러를 시도하다가 사살된 이슬람 극단주의자 2명과도 연락을 주고 받던 사이였다. 미국인 3명은 제2의 샤를리 에브도 테러를 막았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송병형 기자

檢 '5개월 집중' 포스코 수사 진퇴양난

구속영장 줄줄이 기각 "핵심겨냥 못한다" 비판

검찰이 5개월 넘게 화력을 집중한 포스코 수사가 진퇴양난에 빠졌다. 비리 의혹의 핵심인물들을 대상으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출구전략 마련도 쉽지 않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올해 3월13일 포스코건설 압수수색으로 공개수사를 시작하면서 결국 이명박 정부 시절 그룹 수뇌부를 조준한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지 않았다. 예상대로 정준양(67) 전 포스코그룹 회장 주변의 비리를 하나씩 파헤치는 모양새를 띠었다.

수사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비자금 의혹에서 시작해 ▲협력업체 코스틸의 비자금 의혹 ▲성진지오텍 부실인수 의혹 ▲포스코플랜텍 이란자금 횡령 의혹 ▲동양종합건설 특혜 의혹 등으로 계속 갈래를 쳤다.

여러 의혹을 추적하다 보면 정 전 회장 등 전직 그룹 수뇌부, 나아가 이명박 정부 실세들의 비리를 캐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수사의 원동력이었다.

정준양 회장 체제에서 '2인자'로 불린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검찰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졌다. 검찰은 우회로를 모색했다. 동양종합건설 등 포스코 주변에서 이권을 챙겼다고 의심받는 업체들로부터 수뇌부 비리의 단서를 찾고자 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과정 곳곳에 개입한 흔적이 드러났지만 그룹 차원의 비리에 연루된 정황은 좀처럼 확인되지 않았다. 바뀐 전략이 오히려 비리의 핵심에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검찰은 배성로(60) 전 동양종합건설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에 모두 7가지 범죄혐의를 적으면서 신병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부회장의 영장이 두 번 기각됐기 때문에 배 전 회장은 좀 더 신중하게 판단하고 발부 가능성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배 전 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팀에 상당한 충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겨냥하지 못하고 몇 달째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됐다.

포스코 수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충분한 첩보 수집과 내사 없이 급하게 착수한 '하명 수사'의 한계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라는 특별수사의 원칙을 깨면서까지 포스코의 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수사망을 단번에 거둬들일 명분도 마땅찮다.

성진지오텍을 둘러싼 비정상적 지분거래와 동양종건을 둘러싸고 제기된 해외 건설공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의 배임 혐의가 있는지 철저히 규명하는 정도가 출구로 꼽힌다.

검찰은 "정 전 회장 등의 수사상황과 별개로 비리 단서가 확보되는 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말해왔다. 실제로도 그룹 차원 수사를 본격화하던 시점에 포스코건설의 토목분야에서 주택건설분야 비리로 수사를 확대했다. 그러나 동력을 회복할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들을 정리하는 수준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거라는 전망이 유력하다.

/김서이 기자 redsun217@metroseoul.co.kr

기사제보=02)721-9832

"정부 소송 변호사·수임료 공개해야"

전관예우 금지법 근거 마련

정부 부처나 기관이 소송을 진행할 때 선임한 변호인이 누구인지, 수임료 수준이 합당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 소송에서 이른바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특정 사건에서 승소하려고 과다한 비용을 감수했는지 등 속내가 확연히 드러날 전망이다.

23일 투명한 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강성국 센터 간사가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심판'에서 강 간사의 손을 들어줘 정보공개를 결정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11월 법무부에 2012년 이후 법무부에서 지출하거나 책정과 지급할 예정인 변호인 수임료 내역을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여기에는 변호인 이름과 법인명, 담당재판, 수임료의 금액, 지급일 혹은 책정 또는 지급

예정일 등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등에 따라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수 있거나, 법인·단체와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그러자 강 간사는 지난해 12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변호인 수임료는 수사·재판 내용이 아닌 공공기관의 예산 지출에 관한 정보이므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공공기관을 대리한 수임료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 심판을 청구했다.

8개월간의 장고 끝에 위원회는 11일 "법무부가 강성국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재결했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요구한 정보가 공개된다는 이유만으로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려면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야 하는데, 소송 대리인과 수임료 정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 간사는 "지난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때 법무부가 변호인들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일반적인 수준보다 훨씬 많다는 소문이 돌아 이를 확인하려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부처와 기관들은 재판 때 유명 법무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은 다 국민 세금이니 얼마를 지급하는지, '전관 변호사'가 동원됐는지 등을 국민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선준 기자

판결문 어려워 상소기간 도과 상소권 회복 청구자격 없어

생활 법률

횡령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A씨. 1심 법원은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를 집행유예로 잘못 알아들은 A씨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판결 주문이 너무 어려워 결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다 최근 선고 내용을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뒤늦게 항소를 제기하려 했지만 기간은 이미 지난 상태. A씨에게 상소권회복 청구 자격이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A씨에겐 상소권 회복 청구 자격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상소할 수 있는 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제기기간 내 상소를 하지 못한 때에는 상소권 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히 "판결 주문이 너무 어려워서 알아들을 수 없었다"라는 A씨의 청구 사유는 본인과 대리인의 '과실'에 해당돼 청구권 자격이 발생하지 않는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질병으로 입원해 거동불능 상태에 있거나 주소지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관련 소송서류를 받지 못해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반대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 사례는 피고인이 불출석한 가운데 선고 공판을 진행해 결과를 몰랐다거나, 교도소장이 형집행유예 취소결정을 송달받고도 피고인에게 시일이 지난 뒤 알려줘 즉시 항고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등이다.

이처럼 상소제기 기간을 도과한 피고인은 누구든 법원에 상소권회복 청구 신청을 할 수 있다. 결정은 법원이 하지만 청구 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피고인의 상소권 회복 청구 신청을 받은 법원은 검찰청에 기록송부촉탁을 하거나 출장서증조사를 통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심리가 진행 중인 동안에는 재판의 집행이 정지되며, 구금된 피고인의 경우 결정이 날 때까지 석방된다. 법원이 최종적으로 상소권회복청구를 인용한 경우 상소제기는 즉시 효력이 생기고 이미 발생한 재판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연미란 기자 actor@

"대중교통으로 출근하다 다치면 산재 인정"

승용차·자전거 2단계 검토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출·퇴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금을 지급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공익대표로 이뤄진 산재보험 정책전문위원회가 21일 열려 출퇴근 재해의 산재보험 도입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이는 노동개혁 과제의 하나로 추진된다.

정연택 충남대 교수가 발표한 발제자료에 따르면 저소득 근로자가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보호가 먼저 이뤄지고, 승용차 출퇴근 산재보험은 보다 늦게 시행될 전망이다.

1단계로 버스, 지하철, 철도, 도보, 자전거, 택시 등에 대한 출퇴근 산재보험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카풀(Car Pool) 등은 2단계로 검토될 전망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저소득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사업장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기업의 보험료 납부 능력이 더 크기 때문에 대기업부터 도

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동차보험과의 중복 지급 문제는 ▲자동차보험에서 먼저 보상하면 이를 지급하는 안 ▲자동차보험의 지급액을 공제하고 보상하는 안 ▲자동차보험과 분담하는 안 등이 검토된다.

11대 교통사고 중대과실 등 피해자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을 50% 이상 줄이는 방안도 검토된다. /유선준 기자

로또복권 제664회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10	20	33	36	41	44	5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536,801,338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58,212,172
3등	5개 숫자 일치	1,674,076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9(신문로2가)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인쇄인	남 궁 호
사장·편집인	김 종 학
편 집 국 장	강 세 준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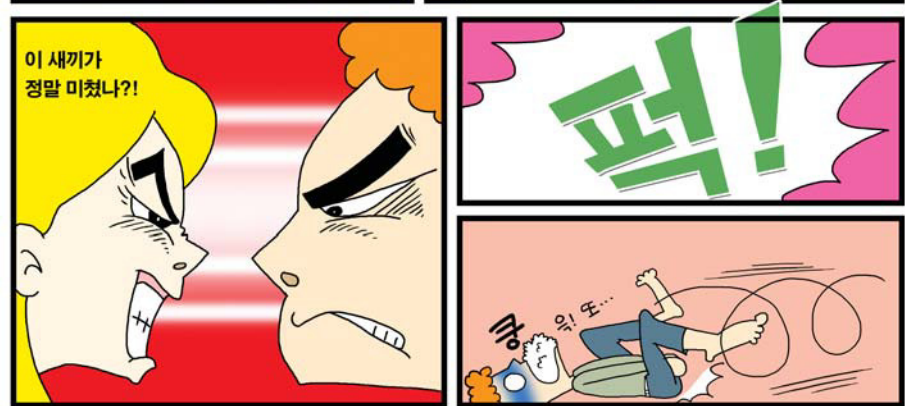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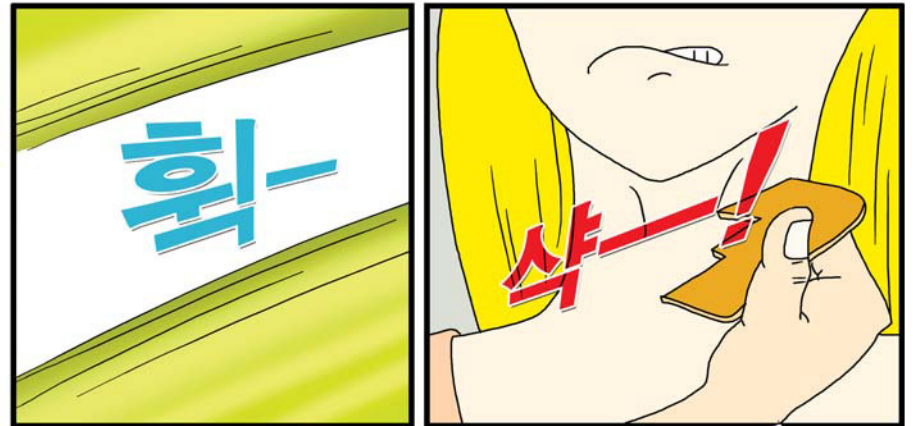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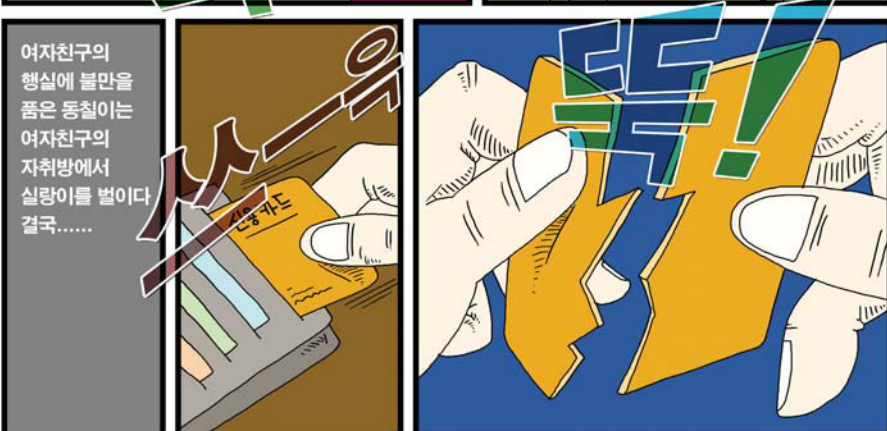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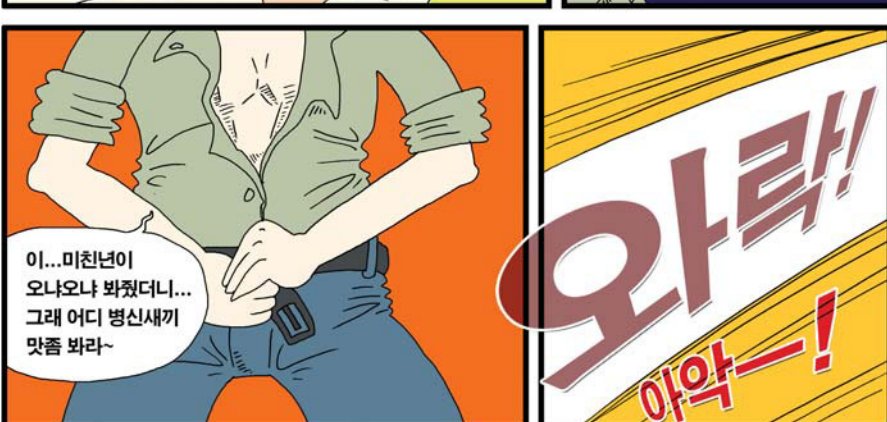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판례로 보는 만화형법

글:강세준
그림:까시
kkasy.co.kr

<5화 폭처법상 흉기>

관련판례 : 서울북부지법 2015년7월3일 선고, 2015고단73

관련 법규 :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57조의 상해죄를 범한 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중국수출희망업체모집
한국상품 전용면세몰 제남보세구 면세몰입점 모집

제남보세구

면세 쇼핑몰 9월 12일 오픈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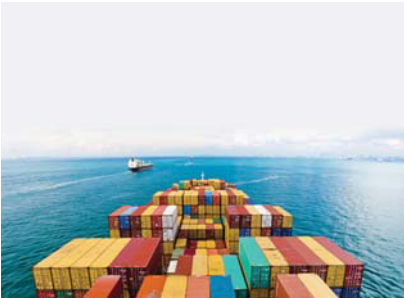
※ 본이미지는 고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사물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은 사업진행 과정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남보세구 면세쇼핑몰에서 드리는 4가지 특권

1. 투자 및 수익성

- 저렴한 임대료
  ▶ 고정비 절감
- 한국관 관리업체 통합판매관리
  ▶ 직접 및 간접 경비 절감
- 통역 지원/ 관리지원으로 언어 문제 해결
  ▶ 간접비 절감

2. 경쟁력

- 인터넷 판매 :
  제작 및 운영비 전액 시정부 지원
- 소매(도매가능) 판매 :
  중국내 최저 수입가로 단가 경쟁력 확보
- 광고비 :
  RMB1,500만/년 정부지원

3. 통관

- 제남세관 투자사업으로 통관절차
  간소화로 통관시간 단축
- 사전 통관절차 없이 창고
  先출고 後신고 지원

4. 운송 및 재고

- 전문 포딩업체 (NEO GLS) 통합물류관리
  ▶ 운송비 최소화
- 전용기 활용 운송
  ▶ 운송시간 단축 ▶ 재고 최소화
- 보세창고 무료 이용으로 고정비 절감

NAVER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제남보세구 면세점을 검색해주세요!

제남보세구 면세점 ▼ 검색

주소

济南市经十东路综合保税区港源二路755号

제남 국제공항 ▶ 제남 보세구 쇼핑몰

자가용 기준	거리	택시비
소요시간 19분	18km	51원 (약 9,000원)

문의전화

중국 : +86-531-8880-3865

한국 : 1566 -1298

사업설명회 신청방법

사업설명회(현장실사) 참가 신청서는 엠포털 홈페이지 mportal.org 에서
다운로드 후 팩스 02-6280-4470 또는 이메일 chn@mportal.org로 신청 바랍니다.

엠포털 홈페이지
www.mportal.org

주관기관 : 제남시정부, 제남세관, 제남일보 주관업체 山东晨世进出口贸易有限公司

외국인 'Bye 코리아' 행렬, 어디까지?

21일 외인 '순매도' 4500억원… 올 최대치
美금리인상 우려·亞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

최근 한국 주식시장에서 해외발(發) 투자자금이 썰물처럼 빠지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화 강세에 따른 환차손을 우려해 자금 회수에 들어간 탓이다. 특히 국내 증시에는 앞서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에 따른 불확실성이 팽배한 상태였다. 여기에 북한의 군사 도발 소식까지 더해지자 외국인 투자자는 올 들어 가장 많은 주식을 시장에 내던졌다.

21일 한국 증시는 '피의 금요일'이라 할 만큼 처참했다.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2.01% 하락한 1876.07포인트로 장을 마쳤다. 코스피가 종가기준 1900선을 하회한 것은 지난 1월16일(1888.13) 이후 7개월여 만이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4.25% 폭락하며 627.05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이 종가기준 630선 아래로 내려간 건 지난 3월18일(628.99) 이후 처음이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이달 들어서만 각각 7.59%, 13.51% 하락했다.

외국인 투자자의 순매도 행진이 지수의 낙폭을 키웠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은 21일 하루에만 4421억원 어치를 팔았다. 이달 들어서는 지난 4일 단 하루를 제외하고 12거래일 연속 매도해 총 1조8807억원 어치를 처분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에선 421억원이 증발, 3주 만에 1조9228억원의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을 떠났다.

◆中증시·美금리·北도발 '삼중고'

외국인의 이 같은 순매도는 한국을 둘러싼 대형 악재들 때문이다.

우선 중국 인민은행(PBOC)이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기습적으로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린 것이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큰 국내 증시의 불확실성을 키웠다.

더불어 미국이 빠르면 9월, 늦어도 12월 중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전망이 외국인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면 달러화 강세에 따라 원화는 약세가 된다. 이에 따른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들은 손해가 커지기 전에 자금을 회수하게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의 포격 도발이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로 떠오르면서 원·달러 환율은 3년1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치솟았다.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종가보다 0.84%(9.9원) 오른 1195.0원을 기록했다. 지난 2011년 9월26일(1195.8원)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북한보단 미국-중국에 '주목'

전문가들은 북한 리스크가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단기적일 것으로 보고 미국이나 중국 시장에 주목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변준호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북한의 포격 도발로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원·달러 환율 추가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대북 리스크가 악재로 작용하는 영향력이 점차 축소된 점에서 이번 포격 사태는 단기 변동성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도 "북한 리스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대표적인 원인 중 하나일 만큼 금융시장에 악재이기는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상 북한 변수에 의한 코스피 하락폭은 적을 것"이라며 "북한 리스크보다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의 경기둔화, 미국의 금리인상 이슈에 맞춰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외국인이 한국 증시에서 등 돌린 까닭은 최근 급변한 환율, 즉 원화 가치 절하 때문으로 외국인은 6월부터 현재까지 4조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했다"며 "원·달러 환율이 진정되지 않으면 외국인 순매도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김보배 기자 bobae@metroseoul.co.kr

주간 경제지표 일정

일정	국가	기준월	지표	예상치	이전치
25일	독일	2분기	GDP (YoY, 확정치)	1.6	1.6
	미국	6월	FHFA 주택가격지수 (MoM)	0.4%	0.4%
	미국	6월	S&P/케이스쉴러 주택가격지수 (MoM)	0.03%	-0.18%
	미국	7월	신규주택판매 (MoM)	6%	-6.8%
	미국	8월	컨퍼런스보드 소비자신뢰지수	93	90.9
26일	한국	8월	소비자심리지수		100
	미국	7월	내구재수주 (MoM)	-0.4%	3.4%
	미국	7월	내구재수주(운송제외, MoM)	0.2%	0.7%
27일	미국	2분기	GDP (잠정치, QoQ, AR)	3.2	2.3
	미국	7월	미결주택판매 (MoM)	1.5	-1.8
28일	일본	7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0.2%	0.4%
	일본	7월	소매판매 (YoY)	1.1%	1%
	유로존	8월	경기신뢰지수	103.5	104
	유로존	8월	소비자신뢰지수 (확정치)		-7.1
	미국	7월	개인소득 (MoM)	0.4%	0.4%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 (MoM)	0.4%	0.2%
	미국	7월	개인소비지출물가 (MoM)	0.1%	0.2%
	미국	8월	미시건대 소비자심리지수 (확정치)	93.2	92.9

/자료: KDB대우증권 리서치센터

美 금리 불확실·신흥국 우려로 변동성 장세

"9월 FOMC까지는 지켜봐야"

이번주(24일~28일) 코스피지수는 미국 통화정책의 불확실성, 신흥시장의 리스크 확대 등으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수급 측면에선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로 반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시장 우려가 확대되고 있고, 북한 도발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불거졌다.

고승희 KDB대우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높은 변동성 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미국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까지는 높은 변동성 장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5개 증권사의 이번주 코스피 전망치를 조사한 결과, 최저점 1840포인트·최고점 1950포인트로 나타났다.

김유겸 LIG투자증권 연구원은 "9월 금리 인상 주장이 힘을 얻으며 시장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면서 "코스피는 1840~1940선 사이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주 주목할 이벤트와 경제지표는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25일) ▲미국 내구재주문(26일) ▲미국 2분기 GDP 성장률(27일) ▲잭슨홀 회의(29일) 등이다.

우선 25일에는 미국 컨퍼런스보드 소비자 기대지수가 발표된다. 현재 시장 평균 추정치(컨센서스)는 93.0으로 전월 90.9 대비 소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다.

미국 고용이 견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다 국제유가가 재차 하락하면서 미국 가솔린 가격도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미국 통화정책의 향후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잭슨홀 회의'도 오는 29일 열린다.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불참하는 가운데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연설에 시장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된다.

피셔 부의장은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연설할 예정이다. 지난 10일 피셔 부의장은 미국 물가 상승률이 너무 낮다고 발언한 바 있다.

고 연구원은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어 공격보다는 방어적인 투자전략이 바람직하다"면서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통신, 은행, 보험주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2분기 실적이 양호했던 필수소비재와 3분기 실적 전망치가 상향 조정된 화학과 금융 업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주 코스피지수는 107.39포인트(5.41%) 하락했다.

주 초반 중국의 경기 부진과 위안화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됐다. 특히 18일에는 중국 증시가 6% 이상 폭락한 영향을 받아 약세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주 코스피 하락을 이끈 것은 외국인과 개인이었다. 한 주 동안 각각 7567억원, 1조1041억원 어치를 내다팔았다. 반면 기관은 1조6179억원을 순매수했다. 이 기간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도한 종목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아시아나항공, 기아자동차 등이었다.

/김민지 기자 minji@

중국의 경기둔화 여파로 중국 증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 개인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내외 불안에 주식펀드 주간수익률 '울상'

2주 연속 마이너스 기록

대내외 불안으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서 국내 주식형펀드도 2주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23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이 지난 21일 공시된 기준가격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국내 주식형펀드의 가치는 한 주간 4% 하락했다.

펀드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가 중국 경기둔화와 미국 금리 인상 우려, 북한 리스크 등 온갖 악재에 둘러싸여 내리막길을 걸은 데 따른 것"이라고 진단했다.

코스피 중소형주와 코스닥이 가파르게 하락함에 따라 중소형주식펀드가 -7.03%의 수익률로 가장 저조한 성과를 냈다.

일반주식펀드와 배당주식펀드의 수익률도 각각 -4.34%, -2.6%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국내 채권펀드는 대체로 양호한 성과를 나타냈다. 국내 채권금리가 안전자산 선호심리 강화 등으로 하락세(채권값 상승)를 보였기 때문이다.

중기채권펀드의 수익률이 0.10%로 채권형 가운데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였고, 우량채권펀드 또한 0.06%의 양호한 수익률을 냈다.

/김민지 기자

미래에셋생명, 2분기 퇴직연금 수익률 1위

증권·손해보험·생명보험·은행 순
삼성생명, 금융사 운용규모 1위

미래에셋생명이 올 2분기 1조원 이상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사 가운데 수익률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운용금액이 가장 큰 회사는 삼성생명이며 수익률은 증권, 손해보험, 생명보험, 은행 순으로 높았다.

23일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원리금보장상품을 1조원 이상 운용하는 금융사들의 2분기 수익률은 0.60~0.76%를 기록했다. DB 원리금보장상품은 약 107조원 규모의 국내 퇴직연금 시장 중 70% 가량을 차지한다.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을 받는 방식이다. 특히 미래에셋생명은 1조1940억원을 굴려 0.76%의 수익률을 기록해 장사를 제일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금융사 중 8곳(47.1%)을 차지하는 은행들은 29조8190억원을 굴려 평균 0.62%의 수익률을 올렸다.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0.63%로 공동 1위를 차지했고, 국민은행은 0.60%로 가장 낮았다. 또 신한은행은 5조4378억원을 운용해 은행 중에서는 가장 많은 자금을 운용했다.

증권업계는 8조1936억원을 운용해 0.73%의 수익을 냈다. HMC투자증권은 5조9025억원을 운용하면서 0.71%, 미래에셋투자증권은 2조2911억원으로 0.74%의 수익률을 올렸다.

한화·삼성·교보·미래에셋 등 4개 생명보험사는 20조8952억원을 운용해 0.69%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은 14조9678억원으로 전체 17개 금융사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굴렸다.

손해보험업계는 5조1451억원을 운용해 0.69%의 수익을 냈다. 롯데손보·삼성화재·KB손보가 이름을 올렸다.

확정기여형(DC) 원리금보장상품을 1조원 이상 운용하는 곳은 은행(5곳), 생명보험(1곳) 등 6개사 뿐이다. 전체 퇴직연금 시장의 20% 안팎을 차지하는 DC는 회사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금융기관을 선택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이다.

신한·국민 등 5개 은행은 12조1648억원을 운용해 0.6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삼성생명은 1조1021억원을 운용해 0.61%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이직이나 퇴직을 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입금할 수 있는 개인 계좌인 개인형퇴직연금(IRP)을 1조원 이상 운용하는 곳은 은행 2곳 뿐이었다. 국민은행이 0.59%, 신한은행이 0.58%의 수익률을 올렸다.

/김민지 기자 minji@metroseoul.co.kr

신한금융그룹, 저소득층 생계비 지원 신한금융그룹이 지난 21일 서울 중구청을 방문해 지역 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생계 지원금 1억원을 전달했다. 신한금융지주 이신기 부사장(오른쪽 두번째)과 최창식 중구청장(왼쪽에서 두번째)이 복지관 관계자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신한금융 제공

농협·국민銀, 메르스 피해병원 대출지원 나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 체결
총 4000억원 규모 긴급자금

/KB국민은행 제공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의료기관에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 지난 21일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의 경영난과 지역사회 의료서비스 기능의 조속한 회복을 위한 긴급 자금을 지원하기로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의료기관 긴급자금지원'은 총 4000억원 규모다. 지원 대상은 메르스 집중피해 기간(6~7월) 동안 매출액이 전년 동월 또는 올해 전월 대비 10% 이상 감소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다.

대출금리는 연 2.47%(변동금리)로, 대출기간은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전년도 매출액의 4분의 1 범위 내(최고 20억원)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원스톱 지원을 위해 기업금융컨설턴트와 SBM(기업금융전문가) 조직을 통한 전국 의료기관의 방문 상담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했다"며 "은행 자금으로 의료기관을 위한 추가자금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긴급자금지원'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이달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 동안 KB국민은행과 NH농협은행의 모든 영업점에서 상담과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김민지 기자

임종룡 "자본시장 구조개선 우선 추진"

차질 없는 금융개혁 당부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은 23일 "자본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최근 들어 중국증시 급락과 남북관계 긴장 등 대내외 여건이 크게 변화함에 따라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MSCI 선진지수 편입 등 시장 안정을 위한 각종 대책들을 가능하면 빠르게 준비할 것"이라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다양한 투자자의 자금운용 수요를 충족하면서 예정대로 판매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거래소 구조개편 등 금융개혁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와 함께 "당분간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 합동으로 시장 점검 회의를 계속 운용해 시장 상황별로 필요한 조치들을 지체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각종 IB보고서와 외신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한국경제·금융시장에 관한 오해가 있다면 이를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철저히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임 위원장은 "시장의 의견을 듣는 대상도 금투업계, 애널리스트 등으로 까지 범위를 확대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상황을 폭넓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민지 기자

상호금융사, 부동산담보대출규제 강화 전망

상호금융사들이 오는 11월부터 토지·상가에 대한 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에 전국의 상호금융사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행정지도 대상 상호금융사들은 신협 단위조합 920곳과 농협 1154곳, 수협 90곳, 산림조합 136곳, 새마을금고 1327곳 등 3672곳이다.

금감원은 이번 행정지도를 통해 그동안 금융사가 재량으로 최근 1년~3년간 지역·담보종류별 경락률에 일정 수준의 LTV기본한도를 높여주던 것을 없애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면서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또 차주별로 산정하는 가산비율은 15~20%포인트이던 것을 10%포인트로 낮추기로 했다.

그동안 LTV기본한도 50%를 적용받는 사람은 담보인정 가치의 65~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0% 이내에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LTV최저한도도 60%에서 50%로 내린다. 기본한도와 가산비율을 더한 수치가 40%가 나올 경우 60%까지 대출이 가능했던 것을 50%에서 제한하는 것이다. /구자익 기자 jikoo8598@

청약 몰려도 미분양 우려… 분양시장 냉온탕

8월 청약경쟁률 18.95대 1 월간 최고치 두달째 경신 내달 전국 4만6000가구 대기

특정지역 물량쏠림 부작용 5·6월 미분양 물량 증가세

부동산 청약 경쟁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올해 하반기에 분양 물량이 쏟아질 예정이어서 아파트 미분양 사태가 우려된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가 금융결제원의 청약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에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총 4만758가구)의 1순위 청약접수자는 67만5838명에 달했다. 월간 청약경쟁률은 평균 17.19대 1을 기록했다.

청약경쟁률은 전월에 16.99대 1로 종전 최고치(2009년 9월 11.99대 1)를 넘어선 이후 한 달 만에 또다시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달에도 청약경쟁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 19일 현재 이달 청약경쟁률은 18.95대 1이다.

앞서 지난 20일 청약을 접수한 대우건설의 '안산 메트로타운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는 1512가구 공급에 총 3444건이 접수돼 평균 2.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이날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평택'은 평균 4.01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같은날 기관추천·다자녀가구·신혼부부·노부모부양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 청약을 진행한 중흥토건의 '광교 중흥S-클래스'도 평균 3.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흥토건이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 중인 '광교 중흥S-클래스' 견본주택에서 방문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중흥토건 제공

분양시장 호조세로 건설사들은 다음달에도 대거 분양물량을 쏟아낼 계획이다. 전국에서 약 4만6000가구(총 가구 기준, 임대 제외)의 분양 물량이 공급된다.

서울에서는 청약률이 높은 강남권 재건축단지와 강북권 재개발단지에서 각각 3곳이 분양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인기가 높은 대형건설사의 메이저 아파트 분양이 이어진다.

부동산포털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가을(9~11월)에 수도권에서 분양되는 래미안, 자이, 푸르지오 등 10대 메이저 브랜드 아파트 물량은 44곳으로 총 3만3167가구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3.6%나 늘어난 규모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수도권에서는 안양, 평택, 화성 등에서 신규 분양이 이어질 예정이고 지방에서는 강원, 경남, 세종, 충남 등에서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며 "휴가철 비수기에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청약경쟁률이 가을 분양시장에서 정점을 찍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분양물량 증가에 따른 미분양 아파트 증가도 우려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3만4086가구로 전월 보다 20% 이상 급증했다. 이는 두 달 연속으로 미분양 주택이 증가한 것이라는 게 국토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경기도는 미분양 물량이 1만2927가구로 전달보다 2500여가구가 늘었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높은 청약경쟁률로 1순위 마감행진을 이어가던 동탄2신도시가 최근 청약 미달 단지가 나오기도 했다.

동탄2신도시는 올해 상반기에 8084가구의 분양물량이 쏟아진 화성시에 속해 있다.

부동산 관계자는 "비수기인 7월과 8월에 이례적으로 분양시장 열풍이 지속되면서 청약열기도 높아지고 있지만 앞서 청약열기가 높았던 지역에서 물량 과다로 미분양이 생긴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석 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탄탄한 교통망에 명문 학군 프리미엄 혜택

한화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광화문 등 도심까지 20분 초·중·고 도보통학 가능 451가구 내달 분양 돌입

한화건설은 다음달에 서울시 은평구 은평뉴타운상업4블록의 '은평뉴타운 꿈에그린'을 분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0층, 4개 동, 총 451가구 규모다. 아파트는 전용 59㎡ 147가구며, 오피스텔은 19㎡ 304실로 구성됐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을 통해 시청, 광화문 등 도심 업무지역까지 20분대에 도달할 수 있다. 서울 외곽순환도로 통일로 IC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일산~동탄 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역이 오는 2022년에 개통될 예정이며 신분당선 북부구간 연장도 추진 중이다.

서오릉자연공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진관근린공원, 갈현근린공원 등 대형공원이 가깝다. 은빛초교, 진관중·고교 등으로 도보통학이 가능하다. 서울 최초 자립형 사립고인 하나고등학교도 인근에 있다.

'은평뉴타운 꿈에그린' 조감도. /한화건설 제공

단지 반경 1㎞내에 쇼핑몰,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들어서는 면적 15만 9759㎡ 규모의 복합쇼핑몰인 롯데몰이 오는 2016년에 문을 열 예정이다.

16층짜리 800병상 규모의 은평 가톨릭대학병원(2018년 예정)과 소방재난본부 등을 한 곳에 모으는 소방행정타운(2018년 예정) 등이 추진 중이다.

조성준 한화건설 분양소장은 "이 단지는 교통, 교육, 환경, 브랜드 모두 갖춰져 있다"며 "최근 은평뉴타운 중심상업지 개발이 박차를 가하고 있어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자들에게도 높은 인기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분양홍보관은 은평구 진관동 100-6번지 은평뉴타운 메이플카운티2차에 있다. 본주택은 9월 중 은평구 은평소방서 옆(신도고등학교 건너편)에 마련될 예정이다. 입주는 2018년 2월 예정이다. 분양문의:1600-4900

/김형석 기자

대림산업, 美에 석유화확 핵심기술 수출

폴리부텐 라이선스 계약 기술도입 40년 만에 첫 쾌거

대림산업이 국내 최초로 석유화학의 본고장인 미국에 석유화학 제조공정의 핵심기술을 수출하게 됐다. 이는 국내에 석유화학 기술이 도입된 지 40여년 만의 쾌거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1일(현지시간) 미국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루브리졸 본사에서 루브리졸과(Lubrizol) 폴리부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계약식에는 이해욱 대림그룹 부회장과 김재율 대림산업 석유화학사업부 대표이사, 제임스 햄브릭(James Hambrick) 루브리졸 회장과 댄 쉬츠(Dan Sheets) 사장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루브리졸은 대림이 제공하는 라이선스로 휴스턴에 폴리부텐 공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고반응성 폴리부텐은 루브리졸이 생산하는 고성능 윤활유와 연료 첨가제 제조를 위한 핵심원료로 사용된다.

대림은 루브리졸로부터 기술료 명목으로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받기로 했다.

대림이 수출한 폴리부텐 라이선스는 단일 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범용보다 기능성이 향상된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대림이 10년 동안 연구해 지난 2010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순수 자체 기술로 개발됐다.

앞서 이 기술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선정한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에 포함됐다.

고반응성 폴리부텐은 윤활유와 연료첨가제 제조에 있어 환경 기준 충족과 제품 성능 향상에 필수적인 원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대림이 개발한 기술은 세계 최초로 저가의 C4잔사유를 활용해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대림산업은 1993년 국내 최초로 범용 폴리부텐의 상업 생산에 성공한 이래 2010년 고반응성 폴리부텐 개발에 성공하며 기술력을 축적해 왔다. 여수에 있는 대림산업 폴리부텐 공장의 증설작업이 끝나는 오는 2016년 11월에는 생산능력과 판매 기준으로 세계 1위의 폴리부텐 제조업체가 된다.

김재율 대림산업 대표이사는 "이번 라이선스 수출은 대림산업의 기술력을 세계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미국 시장에 교두보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1위 폴리부텐 제조회사로서의 지위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석 기자

1등 DNA로 탄생한 '上드럼·下통돌이'

[르포] LG '트롬 트윈워시' 생산 창원공장 가보니…

원스톱 생산시스템 구축 드럼만 15초당 1대 조립

도어개폐 1만번·소음 최소화 고객 신뢰위해 24시간 검사

비가 내린 지난 21일 경상남도 창원시 LG전자 2공장 A1동으로 인근 협력사에서 생산된 세탁기 부품을 실은 트럭들이 쉼없이 들어왔다.

2공장 A1에는 세탁기, 의류건조기, 스타일러, 청소기, 식기 세척기 등 제조라인이 모여 있다. 핵심 부품은 LG전자에서 생산하지만 이외 부품은 하루에 5t 트럭 800여대 분량이 협력사로부터 들어온다.

그중에서도 트롬 트윈워시 제조라인은 미국, 유럽, 중국에서의 출시를 앞두고 바삐 돌아가고 있다.

트롬 트윈워시는 LG전자가 지난달 말 세계 최초로 드럼세탁기 하단에 통돌이 세탁기를 결합해 출시한 제품으로 2007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해 8년 간 약 150명의 인원이 투입됐다.

LG전자의 '1등 DNA'를 이끌고 있는 세탁기는 집 한 채를 짓는 것처럼 정성스레 만들어진다는 느낌이 든다.

2공장 A1 2층에는 약 140m의 대규모 제조라인이 있다. 이중 3분의 1 정도는 트롬 트윈워시의 상단 드럼세탁기를 생산한다.

이 라인에 배치된 작업자들은 옆에 사람이 와도 모를정도로 집중해 작업을 하고 있었다. 빡빡하게 진행되는 공정에 힘들 법도 하지만 세탁기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제품을 생산한다는 자세로 일하는그들의 몸놀림은 가벼웠다.

트롬 트윈워시 상단 드럼세탁기는 15초당 1대꼴로 생산한다. 이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다.

작업자들은 세탁기에 조작부 계기판을 부착하고, 각종 버튼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사한다.

이후 세탁기 상판을 체결하면 모든 조립 공정이 끝난다.

이후 바로 품질검사가 이어진다. 단 한 대의 불량품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없다는 LG전자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작업자는 세탁조 내부에 물을 채우고 빨랫감 대신 실리콘 재질의 모형을 넣는다. 헹굼, 탈수, 스팀 분사 등의 작동 여부와 소음, 진동 등이 기준치에 맞는지 점검한다. 세탁조 내부의 물을 제거하면 포장 자동화 공정이 진행된다.

경상남도 창원시 LG전자 창원 2공장에서 트롬 트윈워시의 상단 드럼세탁기를 생산하고 있다. /LG전자 제공

바로 아래층에는 약 40m 길이의 컨베이어 벨트가 있다. 바로 구성된 트롬 트윈워시 하단의 트롬 미니워시 제조라인이다. 작업자들은 캐비넷에 모듈형태의 슬림DD모터를 체결해 조립을 완료한 후 상단 드럼세탁기와 동일하게 품질검사를 진행하고 포장한다.

A1동에서 약 100m 떨어진 세탁기 인정 시험동은 연구원들이 설계한 세탁기가 기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는지 검증하는 곳이다.

신뢰성 시험동 2층에서는 연구원들이 세탁기 상온 조건 시험, 고온 조건 시험, 과진동 시험, 저온 조건 시험, 도어 개폐수명 등 검사를 24시간 연속으로 한다.

저온 조건 시험을 하는 챔버에서는 세탁기를 차가운 김이 나오는 극지방의 기후와 비슷한 영하의 온도에 노출시킨다.

도어 개폐 수명장은 상단 드럼세탁기 도어와 하단 미니워시를 각각 도어자동 개폐기와 서랍 자동 개폐기를 이용해 1만회 이상 반복적으로 여닫는다.

소비자의 손이 가장 많이 닿는 세탁기 도어의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해서다. 세탁기의 신뢰성과 내구성에 대한 LG전자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전시문 LG전자 세탁기사업부장(전무)은 "작은 아이디어를 상품화하기 보다는 오랜 시간을 들여 기술이 들어간 제품을 출시한다"며 트롬 트윈워시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창원=임은정 기자 eunj71@metroseoul.co.kr

22일 서울 삼성동에서 열린 사랑나눔 일일카페 참가자들이 벼룩시장에 나온 물품을 살피고 있다.

대한항공, 벼룩시장 수익금·물품 기부

24회 사랑나눔 일일카페

대한항공은 서울 삼성동 '유익한 공간 2호점'에서 24회 사랑나눔 일일카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전날 열린 행사에는 사전 모집으로 선정된 벼룩시장 참가회원과 숙명여대 입학 홍보대사, 대한항공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회원과 임직원 등 40여명이 참여했다.

벼룩시장 참가자들은 벼룩시장 부스의 운영을 통해 마련된 판매 수익금과 물품 일부를 기부했다.

일일카페는 대한항공의 대표적 나눔 행사다.

행사 수익금 전액은 국제아동돕기연합을 통해 기아로 고통 받는 전세계 어린이들을 돕는 데 쓰인다. /이정필 기자 roman@

삼성전자 'IDEA 2015'서 8개 본상 휩쓸어

NX미니 '금상' 등 최다 수상기업 선정

삼성전자는 세계적 권위의 국제 디자인 공모전 'IDEA 2015'에서 최다 수상 기업에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IDEA 2015에서 삼성전자는 금상 1개, 은상 3개, 동상 4개 등 8개의 본상을 수상했다. 최근 5년간 삼성전자는 총 31개의 제품이 본상을 수상하는 등 디자인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금상을 수상한 렌즈 교환식 미러리스 카메라 'NX미니'(사진)는 두께 22.5㎜, 무게 158g으로 휴대가 간편하고 17종의 다양한 렌즈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기존 카메라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삼성전자 생활가전 디자인이 추구하는 방향을 쉽게 전달하기 위해 만든 '가전 디자인 철학'은 누구나 공감 할 수 있는 감성 스토리를 영상과 책으로 담아 은상을 수상했다.

조리도구와 접시 등을 세척한 후 한번에 옮길 수 있는 기능을 인정받은 금속 소재의 프리미엄 디자인 '워터월 식기세척기'와 세계 최초로 스마트 폰의 데이터가 커버로 전송돼 커버에 탑재된 발광다이오드(LED)로 정보가 표시되는 'LED 플립커버'도 은상을 수상했다.

이어 △가상현실 헤드셋 기어 VR △무선 360 오디오 △개인용 이동형 냉방기 △스마트 오븐 등 4개 제품은 동상을 수상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디자인경영센터장 사장은 "사용자의 삶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영감을 바탕으로 한 혁신적인 디자인 제안을 통해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한진 기자 hjc@

삼성SDI 봉사단 "거문도를 부탁해"

덕촌마을서 환경정화 봉사

삼성SDI는 20~22일 거문도 덕촌마을에서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삼성SDI 울산사업장과 덕촌마을의 인연은 2년 전 시작됐다.

올해는 울산사업장 임직원 외에 도 인근 대학교, 병원 등에서 지원자를 모집해 60여명의 봉사원정대를 꾸렸다.

이들은 환경 정화와 간이 진료, 벽화 그리기와 청소년 대상 진로 멘토링 등 활동을 펼쳤다.

바다에서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스킨스쿠버 동호회가 활약하며 낡은 어구 등을 건져냈다.

김광진 덕촌마을 이장은 "마을회관에 벽화가 생기고 해안가도 깨끗해져 마을이 환하게 변했다"며 "그동안 마을이 적막하고 쓸쓸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찾아줘 고맙다"고 답했다. /이정필 기자

삼성SDI 임직원 봉사원정대가 22일 거문도 덕촌마을에서 환경정화를 하고 있다.

날렵한 디자인·묵직한 힘… 소형 SUV 새장 열다

시승기

'티볼리 디젤'

상반기 '최고의 모델' 뽑혀
출력 115ps·토크 30.6kg·m

쌍용자동차의 소형SUV(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 '티볼리 디젤(사진)'이 최근 시장에서 광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지난 1월 출시 후 지난달까지 국내에서 2만2000여 대가 판매된 티볼리는 7월 디젤 모델의 출시를 기점으로 라인업을 늘려 소형 SUV 시장의 리더로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

티볼리는 지난달 SK C&C ㈜엔카가 성인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상반기 신차 '최고의 모델'로 뽑혔다.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안전도 평가(KNCAP)에서는 총점 91.9점(100점 만점)으로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다. 쌍용차는 티볼리 차체의 71.4%에 포스코의 고장력 강판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고장력 강판은 무게가 기존 강판에 비해 가벼우면서 강도는 더 높은 소재를 뜻한다.

이 같은 추세로 볼 때 티볼리의 연간 판매 목표인 3만8500대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23일 서울 광화문을 출발해 경기도 부천까지 왕복 60㎞ 구간을 최고급 모델인 '티볼리 디젤 LX(2495만원)'로 시승해봤다. 이 모델은 유로6 e-XDi160 엔진이 적용돼 최고출력 115ps, 최대 토크 30.6 kg·m로 실제 주행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1500~2500rpm 구간에서의 빠른 응답성과 경쾌한 주행 성능을 갖췄다.

실내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도 한국지엠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 CTS를 연상케 할 정도로 세련미가 넘친다.

좌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다. 디젤이라 엔진 소음이 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엔진 소리가 거슬리지 않았다. 시속 100㎞ 이상 고속에서도 옆 사람과 대화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주행감각도 소형 SUV치곤 묵직하고 탄탄함이 느껴진다.

디젤은 가솔린 때보다 월등히 강해진 힘이 느껴졌다. 가솔린 차량은 16kg·m의 토크를 내지만, 디젤은 두 배인 30.6kg·m의 토크 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교통량이 많은 국내 주행 환경에서 중저속 주행성능은 중요하다. 배기량 1600cc에 최고 출력이 115마력인 만큼 시속 120㎞를 넘어가도 탄력을 받는데 부족함이 없다.

브레이크 성능도 향상된 힘만큼이나 개선됐다. 시속 70㎞로 S자형 도로를 달리다가 급제동을 해도 차가 차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빠르게 멈췄다. 차체자세제어장치(ESP)와 ABS(미끄럼방지장치)가 서스펜션과 함께 적절하게 작동돼 차량을 잡아준 것이다.

디자인과 안전성, 편의성 등 동급 최고 수준의 상품성에 한국지형에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을 결합해 성능과 연비를 동시에 만족시킨 제품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타일을 중시하고 다이내믹한 드라이빙을 추구하는 합리적인 소비자에게 최적의 모델이 될만하다.

주행을 마치고 난 후 연비는 티볼리 디젤 공식 복합연비인 L당 15.3㎞ 수준에 가까운 14.9㎞를 기록했다. 티볼리 디젤의 판매 가격은 트림에 따라 ▲TX 2045만원 ▲VX 2285만원 ▲LX 2495만원이다.

/김종훈 기자 fun@metroseoul.co.kr

예상 밖 인기에 임팔라 '물량난'

한국지엠

美 본사에 추가생산 요청

한국지엠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에 쉐보레 임팔라 추가 생산을 요청했다.

23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임팔라는 국내에서 21일까지 사전계약이 3000대를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지엠은 임팔라가 본격 판매되는 9월부터 올 연말까지 4개월간 모두 4000~5000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이런 예상치를 넘어 공격적인 가격 정책 등에 힘입어 정식 출시 전에 3000대 이상 팔린 것이다.

한국지엠 측은 "최근 지엠 본사에 물량 추가 공급을 요청하고 본사와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팔라는 국내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지엠의 미국 디트로이트 햄트래믹 공장에서 생산된 물량을 한국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주문 폭주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

현 추세라면 앞으로 2주 정도면 올해 임팔라 예상 판매 물량의 계약이 완료될 수도 있다고 한국지엠은 보고 있다. 때문에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하지만 현지공장의 생산 능력과 미국 내 수요, 부품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충분한 물량 확보가 여의치 않을 수 있는 상황이다.

사전계약한 소비자들은 차량 출고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길어질까 봐 우려하고 있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말리부 디젤의 주문량이 몰리자 출시 1개월 만에 판매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 말리부 디젤은 독일 오펠의 엔진과 일본 아이신의 변속기를 탑재한 차로 부품 조달에 한계가 있었다.

임팔라는 24일 전국 쉐보레 전시장에 선보이며 27일부터 소비자에게 인도될 예정이다.

/정용기 기자 yonggi@

"경영 최우선 순위는 윤리"

권오준, CEO 특강

권오준(사진) 포스코 회장이 "윤리를 회사 경영의 1순위로 정착시켜야 한다"며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비자금 조성 등 내부 비리 문제로 홍역을 치른 포스코는 현재 고강도 경영쇄신을 진행 중이다.

23일 포스코에 따르면 권 회장은 전날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사내 토요학습에서 '윤리경영의 중요성과 위기극복을 위한 리더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최고경영자(CEO) 특강을 열었다.

이번 특강에는 포스코그룹 임원 등 1300여명이 참석했다. 포항 포스코본사와 광양제철소에도 생중계됐다.

권 회장은 "윤리의식이 있더라도 쉽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무의식적으로 윤리를 지키지 못하게 된다"며 "이러한 비윤리 행위가 쌓여 기업의 신뢰를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경영상의 손실이 오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윤리를 지켜야 하며 그것이 좋은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업의 시장가치는 재무가치와 평판가치로 나뉘는데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대해 가진 신뢰를 뜻하는 평판가치를 조속히 회복하려면 임직원 모두가 필사즉생의 각오로 윤리를 최우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클린 포스코 시스템을 비롯해 경쟁·공개·기록 등 3대 100% 원칙, 금품수수·횡령·정보조작·성윤리위반 등 4대 비윤리행위 관련 무관용 원칙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권 회장은 "리더는 모범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물론 조직 전체가 윤리의식에 기반을 두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며 "리더의 의식에 따라 조직의 방향성이 바뀌기 때문에 포스코가 윤리문화를 확립하는 데에는 리더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용기 기자

르노 탈리스만

국내도로 주행장면 포착

르노삼성자동차가 내년 초 부산공장에서 생산해 판매하는 플래그십 세단 탈리스만이 국내 도로에서 포착됐다.

23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기흥중앙연구소 연구원들은 탈리스만을 베이스로 한 세단을 개발 중이다.

탈리스만은 10-방향 마사지 및 통풍 시트, 자동 주차 시스템, 보스 사운드 시스템, LED(발광다이오드) 헤드 램프, 헤드업 디스플레이 등 편의 사양을 탑재했다. 엔진은 디젤 엔진 3종(dCi 110, dCi 130, dCi 160)과 가솔린 엔진 2종(TCe 150, TCe 200)이 있다. 트랜스미션은 6단 수동 변속기와 6단 및 7단 듀얼 클러치(EDC) 자동 변속기로 구성됐다.

르노 탈리스만

/출처 보배드림

1.6 dCi 130 디젤 엔진은 최고출력 130마력, 최대토크 32.6kg·m의 힘을 낸다. 고성능 버전인 dCi 160은 최고출력 160마력, 최대토크 38.7kg·m다. /정용기 기자

[Re : Member]

2015 손기정 평화마라톤대회

2015 SonKeeChung Peace Marathon

2015. **10. 25(일) 10 : 00**

경기도 파주 임진각

풀코스 | 하프코스 | 10Km코스 | 6Km코스

접수 I 대회 문의 1666-1936

www.sonkeechungrun.com

■주최

■공식기념품

1936 베를린올림픽 마라톤우승 손기정 청동투구(보물 제904호)

I 대회 참가자 접수중!

스마트홈 연착륙, IoT 생태계 '표준화' 관건

<사물인터넷>

SKT
통합형 IoT 플랫폼 열어 국제 표준 '호환' 강점

LGU+
자체 허브 서비스 구축 자사 제품 국한 한계

KT
경쟁사 비해 준비 미흡

'스마트홈' 시대에 진입하면서 집안의 다양한 기기를 외부에서 제어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 공기 중 습도비율을 분석해 제습을 해주는 스마트 제습기부터 미세먼지를 분석해 실내 공기를 정화시키는 공기청정기까지 집안의 기기들과 대화하고, 기기가 스마트하게 작동하는 스마트홈 시대가 현실이 되고 있다.

스마트홈 서비스의 중요한 역할은 각각의 스마트 기기에 대한 '관리'와 '제어'다. 스마트홈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심 제어 장치(허브)를 통해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앙통제실 역할을 하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스마트폰 내부의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스마트홈 기기들을 개별적으로 컨트롤하고, 사용자의 상황에 맞도록 기기들을 통합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국내외 IT 대기업들은 사물인터넷(IoT) 개방 생태계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업계는 국내 다수 제조업자와의 협업을 위한 통합 개방 플랫폼을 만드는가 하면 자체 홈 IoT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스마트폰에서 생태계의 이점을 톡톡히 누렸던 구글과 애플은 최근 IoT용 운영체제 플랫폼 브릴로(Brillo)와 홈킷(Home kit)을 공개했다. '개방'을 핵심으로 IoT 독자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움직임이다.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SK텔레콤 본사에서 열린 스마트홈 서비스 출시 행사에서 스마트홈 기기 관련 협력사들과 함께 자체 개발한 스마트홈 플랫폼을 탑재한 다양한 홈기기들과 새로운 스마트홈 서비스 브랜드를 공개했다. /SK텔레콤 제공

SK텔레콤은 국제 표준을 채택해 직접 생태계 조성에 나서고 있다.

SK텔레콤은 통합형 IoT 플랫폼 '씽플러그'를 열었다. 국제 표준인 원M2M 기반이어서 호환성이 높은 게 특징이다. 또 이통사 중 최대로 25개의 국제 제휴사를 확보해 연내 20개 이상의 스마트폼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5월 도어락(아이레보), 제습기(위닉스), 보일러(경동나비엔), 가스밸브차단기(타임밸브) 등 4개 제품을 1차로 출시한 데 이어 9월 이후에는 위니아의 김치냉장고 '딤채'를 비롯해 쿠첸의 전기밥솥, 하츠의 레지후드, 공기청정기(위닉스·위니아·동양매직), 보일러(린나이·대성셀틱) 등에 스마트홈 기능을 탑재해 내놓을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로봇청소기(유진로봇), 보일러(알토앤대우), 웰패드(코맥스·YPP), 조명기기(GE라이팅), 공기질감센서(에어큐브) 등을 추가해 30개 이상의 스마트홈 제품과 제품군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LG유플러스는 아직은 자체 제품 출시에만 국한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체 'IoT 허브'를 가정내 와이파이에 연결해 자사가 출시하는 제품으로 스마트홈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생태계 구축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LG유플러스는 가스락, 스위치, 플러그, 에너지미터, 열감지센서 등 6가지 스마트홈 신규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도어락, 온도조절기 등 10개 제품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다.

KT는 경쟁사에 비해 스마트홈 서비스 준비가 미미한 상태다. KT의 서비스로는 '기가 홈피트니스', '기가 IoT 홈캠' 등 이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SKT 'T로밍 원패스 플러스' 오늘 출시

무제한 데이터+음성통화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은 전세계 145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 로밍과 함께 음성발신 5분을 기본으로 제공하는 'T로밍 원패스 플러스' 요금제를 2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T로밍 원패스 플러스'는 하루 9000원(부가세 포함 9900원)에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할 수 있는 'T로밍 데이터무제한 원패스'에 로밍 음성발신 할인 혜택을 더한 요금제다. 이를 통해 고객은 하루 1만2000원(부가세 포함 1만3200원)의 요금으로 무제한 데이터 로밍과 음성발신 5분(한국발신 및 현지발신)을 별도 요금제를 가입하지 않을 때보다 최대 9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별도 요금제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미국에서 한국으로 5분 동안 음성 통화 시 1만1000원이

SK텔레콤은 'T로밍 원패스 플러스' 요금제를 24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SK텔레콤 제공

부과되는 반면, 'T로밍 원패스 플러스'에 가입하면 추가 3000원으로 로밍 음성발신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73% 할인받는 수준이다. 이 외 중국, 일본 등의 주요 국가에서도 약 50%에서 70%까지 로밍 음성발신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T로밍 원패스 플러스'가 길찾기, 맛집검색 등 무제한 데이터 로밍을 이용하면서 1~2통의 간단한 음성통화를 하고자 하는 고객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은정 기자 eunj71@

현대차, 대형세단 판매량 저조… 美서 고전

에쿠스 가격경쟁력 활용 못해

현대자동차의 에쿠스·제네시스·그랜저(수출명 아제라) 등 대형세단 판매량이 저조해 적신호가 켜졌다. 이 때문에 현대차는 쏘나타·아반떼(수출명 엘란트라)의 판매량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23일 현대차에 따르면 7월 미국에서 에쿠스·제네시스·그랜저는 각각 174대, 2474대, 414대 팔렸다. 전월 대비 각각 131대, 516대, 98대가 줄었다. 이 중 에쿠스와 그랜저는 올해 1~7월 판매량이 1333대, 4067대로 전년 동기 대비 749대, 636대씩 감소했다.

에쿠스는 미국 대형 프리미엄 세단 시장에서 경쟁 모델보다 판매량이 뒤처진다. 이달 메르세데스-벤츠의 S클래스는 1414대가 팔렸다. 이는 전월보다 506대 감

현대차 에쿠스.

소한 수치지만 에쿠스의 판매량을 8배 이상 앞질렀다. BMW 7시리즈는 916대가 팔려 전월보다 372대 판매량이 늘었다.

에쿠스 5리터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416마력, 최대출력 52.0kg·m의 힘을 낸다. 가격은 1억1150만원이다. S클래스 4.7리터 가솔린 모델은 최고출력 455마력, 최대토크 71.4kg의 힘을 낸다. 가격은 1억9340만원이다.

이처럼 에쿠스는 S클래스보다 8000만원 저렴하지만 시장에서 맥을 못추고 있다. 또 엔진 다운사이징 등 기술에서도 뒤처지고 있다.

벤츠와 BMW는 올해 1~7월 미국에서 19만2496대, 19만5593대 판매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7%, 6.4% 증가한 수치로 프리미엄 시장 영향력을 넓히고 있다. /정용기 기자 yonggi@

제4이통사 허가신청, 접수기간 연장되나

제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을 위한 허가신청 접수 기간이 10~15일 가량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텔레콤과 한국모바일인터넷(KMI) 등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준비 중인 후보업체들은 지난 18일 열린 주파수 할당계획안 토론회 당시 "기일이 촉박하다"며 허가신청 기간의 연장을 요구했다.

미래부는 당초 주파수 할당 공고를 낸 뒤 한 달 동안 사업 허가신청을 접수할 계획이었지만 9월 말 추석 연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해 10~15일가량 늦추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또 일부 후보업체가 요구한 주파수 할당 보증금 면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임은정 기자

LGU+, IoT 기기 호환성 테스트 완료

LG유플러스(부회장 이상철)는 9월 프랑스에서 세계 최초로 열리는 'oneM2M 상호호환성 검증 행사' 참가에 앞서 지난 19일부터 이틀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열린 국내 검증 행사에 참가해 사물인터넷(IoT) 플랫폼과 연결되는 IoT 기기간의 호환성 테스트를 마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oneM2M 국내 검증 행사는 TTA가 주관해 IoT 국제 표준인 oneM2M 기반 플랫폼과 기기간 상호 호환성을 검증하는 국내 사전 행사이며, 본 행사는 다음달 14일에서 16일까지 프랑스에서 열릴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국내 통신사로는 유일하게 국내 사전 검증을 시행해 오는 9월에는 국제 행사에 참여해 국내외 기업들과의 호환성 검증을 통해 글로벌 IoT 시장 확산을 위한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oneM2M 상호호환성 검증 행사'에선 IoT 국제 표준인 oneM2M의 기능과 oneM2M과 연결되는 HTTP, CoAP, MQTT 등의 프로토콜과 연동, 사물인터넷 상에서의 실제 메시지가 디바이스에서 플랫폼에까지 전달하기까지의 상호 연동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임은정 기자

백화점 F/W 시즌… 명품·아웃도어 주력

갤러리아百, 패딩·아우터 등 카테고리 킬러 브랜드 강화

AK플라자, MD 개편 진행 아웃도어·아동스포츠 확대

현대百, 男 해외브랜드 중심 수도권 지역 MD 유치 노력

백화점 업계의 가을 맞이가 한창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은 명품관에 신규 브랜드를 대거 선보이고 패딩과 아우터 등의 카테고리 킬러 브랜드를 강화한다.

오는 28일엔 세계 최대 코스메틱 편집숍, 세포라의 미국 메이크업 부문 1위 브랜드 '어반디케이'를 새로 선보인다. 키엘, 입생로랑, 라콤, 슈에무라, 알마니는 9월까지 순차적으로 새롭게 리뉴얼한 모습으로 이번 가을·겨울 시즌을 맞는다.

현대백화점 판교점 입점 명품 브랜드 매장 전경. /현대백화점 제공

이탈리아 브랜드 골든구스도 28일 남녀 복합매장으로 갤러리아 명품관 EAST 3층에 신규 오픈한다. 영국 유니섹스 브랜드 올세인츠(9월 중순 오픈 예정)와 디자이너 브랜드 알렉산더 맥퀸(21일 오픈), 이탈리안 클래식과 모던한 감성의 꼬르넬리아니(28일 오픈 예정) 등도 처음 입점한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이외에도 28일 오픈하는 가을겨울시즌 패딩 팝업존 구성을 통해 이태리 점퍼 브랜드 파라점퍼스, 노비스 등 신규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를 선보인다.

AK플라자(대표 정일채)는 6월부터 약 2달간 분당점 전층 MD 개편과 매장 리뉴얼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스포티즘, 애슬레저룩 등이 부상함에 따라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와 아동 스포츠 브랜드를 확대한다.

2층과 3층 여성의류는 수입명품 의류와 컨템포러리 브랜드간 시너지를 강화하도록 매장을 개편한다. 9개 의류·슈즈·액세서리 브랜드를 한데 모은 신진디자이너 편집숍 '어나더코드(Another Code)'를 선보인다.

4층 남성의류는 포멀 수트 비중을 줄이고 수입 컨템포러리 브랜드와 프리미엄 편집매장을 늘렸다. 스포츠관은 아웃도어를 축소하는 한편 애슬레저스포츠 퍼포먼스 브랜드를 확대했다.

6층 유아동은 수입편집숍을 확대하고 각 브랜드당 면적을 넓혀 편의성을 높였으며 유아휴게실과 놀이공간 등 고객 편의시설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글로벌 SPA(제조유통일괄 브랜드) 입점을 늘리고 수입 디자이너슈즈, 시계 상품군도 늘릴 계획이다.

현대백화점(대표 김영태)은 올해 남성 브랜드 신장률이 30%대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본점에 이태리 까날리, 보기밀라노 등을 강화한다.

또한 수도권 백화점 가운데 최대 규모인 판교점 그랜드 오픈과 함께 지역 우수 브랜드인 제이헬렌을 유치했다. 이외에도 전국 15개 매장 가운데 가장 많은 900여 개 국내외 브랜드를 판교점에 입점시킨다. 루이비통, 구찌, 프라다, 페라가모, 까르띠에 등 해외 명품 브랜드만 83개에 달한다.

롯데백화점(대표 이원준)은 현재 시즌 입점 브랜드와 빠지는 브랜드를 선정 중이다. 대부분의 점포의 입퇴점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홈플러스 매각 본입찰 D-DAY, 새주인은?

사모펀드 컨소시엄 3파전 오리온·현대百도 관심

홈플러스(대표 도성환) 매각을 위한 본입찰이 24일 실시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지분 100%를 가진 소유주인 영국 테스코그룹과 매각 주관사인 HSBC증권은 홈플러스 매각을 위한 본입찰을 24일 실시한다.

홈플러스 본입찰에는 예비입찰을 통과한 해외 서모펀드(PEF) 칼라일,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KKR), 골드만삭스PIA,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 MBK파트너스 등이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홈플러스 인수를 위해 어피니티가 최근 미국 대형 사모펀드 콜버그크래비스로버츠와 제휴, 칼라일이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싱가포르투자청과 각각 제휴했다고 보도했다. 또 MBK파트너스는 골드만삭스 계열 사모펀드인 골드만삭스PIA 및 국민연금관리공단과 손을 잡았다고 전했다.

적격 예비입찰(숏리스트)과정에서 탈락한 오리온과 현대백화점 등 전략적투자자들도 홈플러스 인수전에 여전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로 예정됐던 본입찰 일정은 인수 후보들의 홈플러스에 대한 실사 시간이 부족해 일정이 늦춰졌다.

당초 홈플러스의 자산 가치는 7조~8조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최대 10조원까지 거론됐었다. 하지만 실적 부진에 올 초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각종 소송 문제, 의도적인 장부가치 훼손, 노사 갈등 등으로 시장의 평가는 좋지 않다.

여기에 최근 중국의 위안화 절하,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 등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어 투자자들은 파운드화 인수 후 환차손 부담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현재 인수의향 제출한 곳 중에 합종연횡 움직임도 나오긴 하지만 본입찰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뛰어들 지는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박상길 기자

제주산 흑망고 출시 갤러리아백화점(대표 황용득)은 2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서만 재배되는 흑망고를 명품관 식품관인 고메이494에 출시했다고 밝혔다. 흑망고는 재배가 까다롭고 수확량이 적어 연간 150kg 내외 한정 생산하는 명품 망고다. 개당 중량은 1~1.5kg정도로 일반 애플망고에 비해 2~3배 이상 크다. 판매가는 100g당 6500원이다. /갤러리아 제공

롯데, 공정위 자료요구 4번이나 거부

신학용 의원 "공정위가 롯데 허위자료 묵인"

롯데그룹(회장 신동빈)이 올해에만 해외 계열사 지분 자료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의 제출을 4번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 들어 4차례에 걸쳐 롯데에 소유 구조 관련자료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1월23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 이어 4월2일에는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6월26일과 7월2일에도 비슷한 취지의 요청이 롯데그룹에 전달됐다.

그러나 롯데는 이때까지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경영권 분쟁을 계기로 롯데그룹 해외계열사 지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7월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그러자 롯데는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해외 계열사 관련 자료를 택배상자 7개 분량으로 정리해 이달 20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 향후 롯데의 해외 계열사 소유 실태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방침이다. /박상길 기자

'사람을 움직이는 말' 출간 화제

위메프 박유진 홍보실장 "소비자 언어로 얘기해야"

프리젠테이션 전문가 박유진 위메프 홍보실장(기업소통부문 디렉터·사진)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얻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사람을 움직이는 말'을 펴내 화제다.

"결국 설득과 공감의 출발점은 나의 말이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결과다. 때로는 열 마디의 말보다 단 하나의 진심이 사람을 움직이는 법이다. 날카로운 논리, 명백한 증거, 화려한 말솜씨로 포장해도 상대방(청자)의 욕망, 니즈, 관점을 담지 못하면 설득은 불가능하다. 설득의 고수가 되고 싶다면 말 잘하는 법보다 상대의 관점을 읽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상대의 머리가 아닌 심장에 말을 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시대 최고의 이야기꾼 중 한 사람인 저자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관점을 바꾼 말 한마디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깨닫게 된다.

저자는 상대도 미처 깨닫지 못한 욕망과 니즈를 읽어내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풀어내는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바로 '소비자 언어 전략'이라고 설명한다.

국민대학교 총학생회장(2000년), 제일기획의 삼성전자 미디어 전담 AE, 광고회사 대표 등을 거친 소통 전문가인 저자는 'PT 박'이라는 애칭으로 불릴 만큼 프레젠터로도 명성을 쌓았다. /김성현 기자 minus@

홈플러스 '갤럭시노트5', '갤럭시S6엣지' 판매 홈플러스(대표 도성환)는 '갤럭시 노트5'와 '갤럭시 S6엣지+' 판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갤럭시 노트5의 출고가는 32기가(G) 89만9800원, 64G 96만5800원으로 화이트 펄, 블랙 사파이어, 골드 플래티넘 3가지 색상 중 선택할 수 있다. /홈플러스 제공

식품업계, 2분기 '선방'

메르스 등 악재 속 호실적
CJ·농심 등 신제품 인기↑

주요 식품업체들이 올 2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등으로 내수 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호실적을 달성했다.

특히 CJ제일제당과 농심, 롯데칠성 등이 R&D 투자를 통해 선보인 신제품이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기간 높은 수익성을 기록, 업계 전체 실적을 견인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1918억원(CJ대한통운 제외)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55.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1.9% 늘어난 3조1650억원을 기록했다.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실적호조는 '비비고'와 '햇반' 등 가공식품 브랜드의 판매 증가와 함께 '메치오닌' 등 바이오 신규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며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것이 주요했다.

회사 측은 "2년 전부터 식품부문을 비롯해 전 사업부문에서 고강도 구조혁신활동과 R&D 투자를 지속한 결과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농심도 시장기대치를 크게 웃도는 실적을 내놨다. 농심이 지난 4월 출시한 짜왕이 한 달 만에 100억원 이상 팔리는 등 높은 인기를 끌면서 영업이익이 242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 보다 144.9%나 급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295억원으로 8.0% 증가했다.

오뚜기 역시 호실적을 기록했다. 오뚜기는 2분기 매출액 4377억원, 영업이익 345억원으로 전년비 각각 3.5%와 29.0% 신장했다. 카레, 케첩, 마요네즈 등 주요 품목의 판매가 꾸준히 증가하고 주요 원재료 시세가 하락하면서 호실적의 주요 요인이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제과업체들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기록했다. 롯데제과는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7.4% 증가한 359억원, 매출액은 3.4% 증가한 5604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판매관리비 절감과 기존에 기린 합병, 브랑제리 합병 등으로 시너지 효과가 본격화 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크라운제과도 자회사 해태제과의 허니버터칩 인기가 계속되면서 같은 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314억원을 기록,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7% 신장했다. 매출액은 18.2% 늘어난 3156억원을 기록했다.

오리온도 같은 기간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9.1% 증가한 474억원, 매출액은 3.2% 늘어난 5126억원을 나타냈다.

주류음료업체는 매출 희비가 엇갈렸다. 롯데칠성음료는 올 2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492억원으로 전년비 6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209억원으로 5.6% 늘었다. 사이다 등 탄산음료의 꾸준한 판매와 함께 올해 초 선보인 '순하리 처음처럼'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 같은 호실적을 달성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하이트진로의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 줄어든 4793억원, 영업이익은 9.7% 감소한 281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측은 "소주 부문에서는 저도수 제품의 수요 증가로 매출이 증가했지만 맥주는 메르스 여파로 판매가 부진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업계는 지난해 세월호 사고로 매출감소 폭이 커 올 2분기 메르스라는 악재 속에서도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을 낼 수 있었다"며 "특히 신제품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한 회사들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높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주요 식품업체 2분기 실적 추이

구분	매출	영업이익
CJ제일제당	3조1650억원 (11.9%▲)	1918억원 (55.4%▲)
롯데칠성	6209억원 (5.6%▲)	492억원 (65.3%▲)
롯데제과	5604억원 (3.4%▲)	359억원 (27.4%▲)
농심	5295억원 (8.0%▲)	242억원 (144.9%▲)
오리온	5126억원 (3.2%▲)	474억원 (19.1%▲)
하이트진로	4793억원 (2.2%▼)	281억원 (9.7%▼)
오뚜기	4377억원 (3.5%▲)	345억원 (29.0%▲)
크라운제과	3156억원 (18.2%▲)	314억원 (62.7%▲)

/그래픽 이승민 기자

빼빼로, 日 과자 디자인 도용 판결

롯데제과(대표 김용수)의 막대과자 '빼빼로 프리미어'가 일본 제과업체 제품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일본 제과업체 글리코가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제과의 '빼빼로 프리미어'는 글리코의 '바통도르' 제품 출시 이후에 국내에 출시된 것으로 글리코의 디자인을 침해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제품 형태도 거의 같고 상자 면의 배식이나 정면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등 전체적인 구성이 매우 유사해 글리코 제품을 모방해 제작됐다고 보인다는 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이번 판결로 롯데제과는 더 이상 빼빼로 프리미어를 생산하거나 판매·수출할 수 없게 됐음은 물론 본점 등에서 현재 보관 중인 제품도 모두 폐기하게 됐다. /박상길 기자

어깨동무 두부 협동조합, 물류센터 구축

'어깨동무 두부 협동조합'(이사장 이수천)이 23일 설립 2주년을 맞아 '어깨동무 중앙 통합 물류센터'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어깨동무 두부 협동조합'은 대기업 두부 브랜드에 대항해 각 지역의 두부와 관련 상품 제조업체들이 모여 만든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 측은 2017년 말까지 충북 청원군에 독자 물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토종 블루베리·애플망고 뜬다

국내에서 재배한 토종 블루베리와 애플망고 등 이국적 과일의 생산과 수요가 크게 늘고 있다.

23일 오픈마켓 옥션에 따르면 최근 한 달 국산 블루베리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138% 증가했다. 옥션은 최근 국내 재배 농가 확대와 함께 국산 블루베리 생산이 늘어 소비도 많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호텔신라, 제주 K뷰티 체험 지원

호텔신라(대표 이부진)는 제주산 천연원료로 만든 화장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중국 화장품 유통업자 팸투어 지원에 나섰다고 23일 밝혔다.

중국 전역에 화장품을 유통시키는 수입업체의 지역별 유통관계자들로 구성된 '제주 K-뷰티 체험단'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제주를 찾았다.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호텔신라 지원으로 진행됐다.

미니스톱, 덮밥 도시락 2종 출시

미니스톱(대표 심관섭)은 23일 '치킨 카레 덮밥'과 '중화풍 고추잡채 덮밥' 등 덮밥 도시락 2종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덮밥 도시락 2종은 소스를 비롯한 내용물을 밥에 부어 함께 비벼먹을 수 있도록 했다. 밥과 반찬을 분리 포장해 위생적이고 이동 시에도 소스가 새거나 쏟아질 염려가 없다. 가격은 3000원이다.

백화점 식품관 "우린 불황 몰라요"

식품관 매출만 두자릿수↑

백화점이 쇼핑장소에서 외식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놀이공간으로의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23일 백화점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업계 매출 신장률이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 하는 등 고전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식품관은 불황 속에서도 두 자릿수의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식품관 매출은 ▲2012년 18.7% ▲2013년 13.5% ▲2014년 10.2% 신장했다. 현대백화점 식품관도 ▲2012년 13.8% ▲2013년 12.6% ▲2014년 14.2%의 매출 신장세를 보이며 매년 성장하고 있다.

백화점 고급 식품관 경쟁은 지난 2012년 한화갤러리아가 고메이494를 개장하면서 부터다. 이곳은 식당가와 식재료 쇼핑을 하는 식료품점 공간을 합친 '그로서란트'(Grocerant)를 최초로 시도했다.

/현대백화점 제공

롯데백화점도 지난해 10월 개장한 에비뉴엘 월드타워점 6층에 130년 전통의 이탈리아 고급 식품관 '펙'(PECK)을 오픈했다. 업계 최초로 이탈리아 현지의 모든 식음매장을 그대로 옮겨 왔다.

AK플라자도 2012년 분당점을 시작으로 수원점, 구로본점 등이 대규모 프리미엄식품관인 'AK푸드홀'로 탈바꿈했다. 20~30대 젊은층 고객 비중이 특히 높은 AK플라자 수원점에는 이태원, 홍대, 가로수길 등의 유명 맛집을 델리존에 들여왔다.

현대백화점도 지난 21일 오픈한 판교점에 1930㎡ 넓이의 이탈리아 프리미엄 식자재 브랜드 이탈리(EATALY)를 선보였다. 이곳은 디저트와 델리를 맛볼 수 있는 '그랑바'와 정통 이탈리아 음식이 제공되는 '리스토란테'로 구성돼 있다. ▲디저트(커피, 젤라또) ▲델리(샌드위치, 포카치아) 등 업계 최다인 14개 코너도 별도로 운영한다.

올 가을 허니문 여행지는?

KRT 가을 신혼여행지 선정 고급스러움·실속 두루 갖춰

여름휴가 성수기를 지났지만 여전히 여행상품을 비교하기에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올 가을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다. 이에 일생일대의 중요한 여행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보다 편하게 신혼여행 상품을 고를 수 있도록 여행바보 KRT(대표:장형조, www.krt.co.kr)에서 로맨틱과 럭셔리, 실속까지 모두 갖춘 가을 시즌 허니문 여행지를 선정했다.

▲허니문의 절대강자! 태국 푸켓

허니문 인기 여행지의 절대강자를 꼽자면 태국 푸켓을 빼놓을 수 없다. 푸켓은 한국에서 비교적 거리가 가까우면서 아름다운 해변과 관광을 모두 즐길 수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 중 하나다. 게다가 물가까지 저렴해 비용 대비 만족도가 높아 단연 인기가 높다.

KRT에서 선보인 푸켓 더 쇼어 풀빌라 상품에 포함된 리조트는 2010년 4월에 오픈한 곳으로 푸켓 3대 비치에 해당되는 카타노이 비치에 자리잡고 있다. 자유시간과 관광 코스가 적절히 섞여 있는 상품이기에 해외여행이 처음인 예비부부에게 적극 추천한다.

KRT 가을 예비 신혼부부 대상 로맨틱 허니문 상품, 필리핀 후마 아일랜드 전경.

▲아시아의 몰디브, 필리핀 팔라완

필리핀에서 가장 아름다운 바다로 아시아의 몰디브라 불리는 팔라완은 바다거북, 바다코끼리, 고래상어와 같은 다양한 해양생물종이 서식하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KRT의 팔라완 후마 아일랜드

이 상품은 지역적 특징을 콕 집어 즐길 수 있도록 무동력 해양스포츠, 스노쿨링, 카약 등의 특전이 포함되어 있어 익사이팅한 신혼여행을 원하는 고객에게 안성맞춤이다.

KRT 에서는 푸켓과 팔라완 상품 이외에도 유럽, 미주, 인도네시아, 남태평양 등 다양한 지역의 허니문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예비부부들을 위해 가격 밀고 당기기, 카톡 문의 이벤트, 맞춤 여행 제안, 토요일 방문 상담 신청 등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는 서비스도 함께 제공 중이다. 허니문 상품에 대한 상담 및 문의는 대표전화 (1588-0040) 또는 홈페이지(www.krt.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최치선 기자 chisunti@metroseoul.co.kr

고급형 이동식 주택 선착순 특별가 공급

19.8㎡당 1350만원 판매

이동식주택 전문업체 ㈜ILC&D 주택사업부에서는 하라반에 이어서 고급형 이동식 목조주택을 개발해 시판 중이다. 전용면적 19.8㎡의 매매가격은 1350만원이다. 복층형 26.4㎡는 1700만원에 판매 중이다.

전용면적 19.8㎡ 이하 주택은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 절차 없이 설치할 수 있는 농막하우스다. 사전신고 후 즉시 설치가 가능해 주말 소형 주택, 주말 별장 용도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동식주택 사진. /ILC&D 주택사업부 제공

특히 경관이 수려한 바닷가와 숲속, 호숫가 등에 세컨드하우스 용도로 인기가 높다. 캠핑장, 낚시터, 가든, 공장의 직원 임시 숙소와 농장 등의 간이 숙박 시설 용도로도 설치할 수 있다.

외부와 내부는 목조로 마감했으며, 주방의 싱크대와 샤워실, 화장실은 고급스럽게 마감했다.

목조주택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시원하지만 시스템 2중 창호를 설치해 겨울에는 방한, 단열 처리가 우수하다.

이동식 주택은 공장에서 제작해 전국 어디에서나 이동 설치가 가능하다. ㈜ILC&D는 이번 고급 이동식 주택을 출시한 기념으로 선착순 10명에게 특별 가격에 공급한다. 문의 02)1833-5110.

/김형석 기자 khs84041@

프뢰벨, Think in English 출시 기념 이벤트

'카카오스토리' 소식받기 '영다에듀' 무료증정 행사

엄마들 사이에서 프뢰벨의 '영다'와 '영테'는 이미 고유명사가 되었다. 그만큼 영유아기의 독보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 프뢰벨이 은물과 영어가 결합한 Think in English를 출시했다.

출시하자마다 큰 성공을 거둔 프뢰벨의 퍼포먼스 잉글리시는 영유아 영어전집의 시대를 열었다. 이에 자신감을 얻은 프뢰벨은 좀더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발화에 초점을 맞춘 Think in English를 출간했다.

주목할만한 점은 기존의 영어 교육프로그램들과는 달리 프뢰벨의 대표 브랜드 은물을 활용하는 점이다.

프뢰벨은 출시기념으로 공식 카카오 스토리에서 소식받고 이벤트에 참여한 선착순 1000명에게는 영아다중에듀 영어판 1권을 무료로 증정한다.

또 소식받기 신청자 중 Think in English 출시를 응원하는 댓글을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쿠폰도 증정한다. 아이에게 영어 책을 선물하고 싶은 엄마라면 지금 바로 프뢰벨 카카오스토리 선착순 이벤트에 참여해보자. 문의 : 상담신청 1566-0800.

영다에듀. /프뢰벨 제공

/최치선 기자

금호산업,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에 앞장

안전보건공단 금호산업에 인증서 수여

안전보건공단은 21일 서울 종로구 금호산업 본사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구축한 금호산업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경영방침에 안전보건정책을 반영하고,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에 안전보건공단이 인증하는 선진안전관리 기법이다.

안전보건공단 이영순이사장은 21일 서울 종로구 금호산업㈜ 본사에서 건설업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 18001)을 구축한 금호산업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했다.

금호산업은 500여개 협력사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안전보건 활동 체계 등을 확립하고, 안전보건공단의 실태 및 인증심사를 통해 이번에 인증을 받게 되었다. 건설업 분야의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은 이번 금호산업을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128개사가 받았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인증서 수여식을 통해 "안전보건은 기업의 경쟁력의 필수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며, "경영자는 물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선진안전관리 기법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이 산업현장에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치선 기자

빠른 체중 증강식 '하루콩력' 출시

발효전문기업 (주)푸른친구들(대표 양윤형)은 체중 증강식인 '하루콩력'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하루콩력'은 대두, 서리태, 쥐눈이콩 등 3종 콩과 9종 통곡물을 통째 발효 후 즉시 동결 건조해 만든 제품이다.

/푸른친구들 제공

주원료는 식물성으로는 유일하게 아미노산 스코어 100(WHO,세계보건기구)에서 설정한 단백질의 질을 평가하는 기준. 100에 가까울수록 양질의 단백질)인 콩이다.

'하루콩력'은 유전자 조작이나 방부제 없는 국산콩을 그대로 가공한 콩을 사용해 레시틴,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등 식물영양소가 충분하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육류를 즐기는 사람에게도 좋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하다. 콩발효 단백질이 근육 감소를 막고 9종 통곡물 영양이 건강하게 체중을 늘린다. 특허저분자발효공법으로 영양소의 인체흡수가 빠른 것이 차별점이다.

발효 후 8종 필수아미노산이 발효 전 콩보다 7.5배가 늘어났다. 단백질을 이같은 형태로 섭취하면 흡수가 빨라 근육 감소를 방지하고 근육생성은 촉진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11만9000원이다.

/박상길 기자 sweatsk@

고려대, 中企 자금조달과정 내달 10일 개강

고려대학교가 오는 9월 10일 중소기업 자금조달 과정을 개강한다. 이 수업은 CEO를 비롯해 직접 자금조달을 위한 실무자, 또는 창업인 들에게 필요한 과정이다.

자금조달 과정은 중소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공부하는 실무자 과정으로 정책자금, 투자유치, 자금조달 전략 등 자금조달에 관한 종합적인 학습과 실용적 교육을 목표로 한다.

자금조달은 중소기업의 성장과 창업에 있어 디딤돌이며 성공의 출발선이다.

하지만 자금조달은 누구나 쉽게 조달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와 지식을 습득해야 자금조달이 제대로 가능해진다. 사실 중소기업의 오너는 물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나 창업인에게 있어 자금조달 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필수 과정이다.

수강대상은 중소기업 CEO, 예비창업자, 경영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원 등 자금조달을 직접 필요로 하는 대상. 커리큘럼은 실무 중심의 15강으로 구성 했다.

수업 중 실시간 자문서비스를 받아 기업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며 특징이다.

7주간의 속성수강으로 활용 극대화를 위한 실용전략과 오랜 기간 동문모임을 통해 지속적인 도움의 기회가 힘이 될 것이다.

/최치선 기자

star bag

FNC와 전속계약

배우 **정진영**이 FNC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FNC 측은 "정진영은착한 콘텐츠를 기반으로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FNC의 비전에 부합하는 인물"이라고 계약 체결 이유를 밝혔다.

여성 정치인 변신

배우 **차예련**이 MBC 새 월화극 '화려한 유혹'에 캐스팅됐다. 상류사회에 본의아니게 진입한 여자가 일으키는 파장을 다룬 드라마다. 차예련은 우아함과 미모를 겸비한 여성 정치인 강일주 역을 맡았다.

렌카 공연 오프닝

가수 **유승우**가 오는 27일 열리는 호주 출신 싱어송라이터 렌카의 내한공연 오프닝 무대를 맡는다. 유승우는 소속사를 통해 "평소 좋아하던 렌카의 공연 오프닝을 맡게 돼 영광"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밴드 편성으로 공연

록 밴드 **넬**이 다음달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서울 올림픽공원 우리금융아트홀에서 콘서트 '2015 넬스 시즌 201509'를 개최한다. 밴드 편성으로 카리스마 넘치는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5년 만에 지상파 복귀

이혼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배우 **류시원**이 오는 29일 방송되는 SBS '질주본능 더 레이서'의 MC로 5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복귀한다. 스타 10명이 레이싱에 도전하는 과정을 담은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힘주지 않고 편안하게 했어요"

영화 '퇴마: 무녀굴' **김성균**

김성균(35)은 그 동안 쉼 없이 달려왔다. 주연과 조연을 넘나들면서 코미디, 드라마,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로 자신만의 색깔을 표현해왔다. 그러나 계속되는 작품 활동 속에서 조금씩 고민이 생겨났다. 그렇게 배우 활동에 조금 지쳐갈 무렵 '퇴마: 무녀굴'(감독 김휘)을 만났다.

'퇴마: 무녀굴'은 정신과 의사이면서 퇴마사인 진명(김성균)이 이상한 일을 겪고 있는 여인 금주(유선)를 치료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그린 공포영화다. 제주 김녕사굴에 얽힌 설화를 바탕으로 한 신진오 작가의 소설 '무녀굴'을 김휘 감독이 스크린으로 옮겼다. 김성균에게는 '이웃사람'에서 만났던 김휘 감독과의 두 번째 작업이었다.

연기 고민 속에서 만난 작품
배우 앙상블 생각하며 연기

차기작은 '응답하라 1988'
재미있게 작업하려고 해요

"연기에 대한 고민이 많을 때였어요. '응답하라 1994' 이후 역할 비중이 커지면서 딴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건지, 그리고 최선을 다한다는 게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고 있었죠. 몸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퇴마: 무녀굴'을 선택한 건 힘을 주지 않아도 되는 캐릭터이기 때문이었어요. 편안한 내 목소리를 찾아가보자는 생각이었죠."

전작 '살인의뢰'에서는 상실감과 복수심처럼 깊은 감정을 표현해야 했다. 반면 '퇴마: 무녀굴'은 배우끼리의 앙상블이 중요했다. 극중 진명은 영화의 주인공이지만 스토리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은 아니다. 금주를 치료하고 비밀을 파헤침으로써 관객을 사건으로 이끄는 안내자 역할을 하는 인물이다. "제가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저 혼자만의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영화는 극중 상황에 따라 이야기 중심에 있는 인물이 늘 바뀌니까요. 그리고 진명은 퇴마사지만 일상적인 옷을 입고 말투와 행동도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캐릭터의 독특함을 강조했다면 극 분위기에 잘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진명의 이야기를 더 많이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는 않다. 영화를 보고 나면 왜 진명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퇴마사가 됐는지 궁금증이 남는다. "사실 진명의 유년시절과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부분이 삭제가 됐죠. 촬영까지 한 부분이라서 아쉽기도 해요. 그래서 영화가 잘 돼 속편이 나왔으면 좋겠어요(웃음)." 김성균은 제철음식처럼 여름에만 맛볼 수 있는 공포영화로 관객들이 '퇴마: 무녀굴'을 즐겨주기를 바라고 있다.

김성균의 다음 행보는 드라마다. 올 가을 방영 예정인 tvN '응답하라 1988'을 촬영하고 있다. 필모그래피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마련해준 '응답하라 1994'의 후속작이라는 점에서 주위의 기대가 크다. 그러나 김성균은 "기대치만 생각하다 보면 부담만 점점 더 커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미있게 하자는 생각 밖에 없어요. 예전에 같이 재미있게 작업했던 사람들을 다시 만났으니까요. 결과에는 너무 연연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응답하라 1994'의 삼천포와 전혀 다른 캐릭터에요. 역할의 나이도 확 올라갔고요(웃음)."

스크린에서도 김성균의 활약은 계속된다. 지진희, 성유리 등과 함께 한 휴먼드라마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와 이제훈과 호흡을 맞춘 '명탐정 홍길동' 등이 올 하반기 중 개봉 예정이다. 얼마 전 딸을 낳아 세 아이의 아빠가 된 그는 "2015년 남은 시간은 아내도 좀 도와주면서 영화가 잘 되기를 기도하고 싶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손진영 기자 son@

"세종문화회관 공연, 꿈 이뤄져 신기해"

보아, 데뷔 15주년 기념 공연

"진짜 어렸을 H.O.T 선배들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한다는 이야기를 보고 '나도 가수로 데뷔하면 저런 무대에 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2015년에 그 꿈이 이뤄져 신기합니다."

가수 보아가 대한민국 대표 가수들만 오를 수 있다는 세종문화회관 무대에 올랐다. 보아는 22일과 23일 이틀 동안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2015 보아 스페셜 라이브 나우니스(NOWNESS)'로 6000여명의 팬과 만났다.

23일 오후 본 공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한 보아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공연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힘이 있다. 영광스러운 장소에서 하는 단독 공연이라 부담도 컸지만 다채로운 즐거움을 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보아의 세종문화회관 공연은 국내에서의 활약은 물론 해외 진출에 성공한 아이콘으로서의 성과, 그리고 오는 25일 데뷔 15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콘서트라는 의미를 인정받아 성사됐다.

보아는 올해 한국 나이로 30세가 됐다. 새 앨범을 발표하고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는 등 30대의 첫 시작을 바쁘게 보냈다. 그는 "다양한 활동으로 팬과 만날 기회가 많아서 30대의 시작이 참 좋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댄스 가수로서 많은 걸 보여주고 싶다"고 밝혔다. 또한 가수로서 앞으로 남은 꿈에 대해서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아티스트로 행복과 기쁨, 슬픔 등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친구 같은 가수로 많은 분들의 인생에 남고 싶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가수 보아가 23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여는 '2015 보아 스페셜 라이브 나우니스(NOWNESS)' 공연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타미노 나승서 파미나 박미자 밤의여왕 오미선
파파게노 김동섭 자라스트로 장영근 파파게나 김문희

모노스타토스 김동섭 1st 시녀 김윤지 2nd 시녀 이미선 3rd 시녀 류현수
변사 김대엽 1st 무사 최경일 2nd 무사 김준한 천사 이민지 신소연 안지혜

지휘 서희태 연출 이의주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합창 시흥시립합창단

2015. 9. 19(토) 7:30PM / 9. 20(일) 5PM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후원 시흥시 SIHEUNG CITY 빙그레
예매 세종 문화티켓 02-399-1000,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IP 7만원 R 5만원 S 3만원 A 2만원 B 1만원 공연문의 02-6292-9370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 음원깡패 총출동

내달 5~6일 잠실실내체육관 힙합·발라드 등 장르 총망라

09.05 SAT 6:00pm(Hiphop)
다이나믹듀오 몬스타엑스 매드클라운 배치기 치타 형돈이와 대준이
09.06 SUN 5:00pm(Vocal)
이정 하동균 노을 황치열
티켓예매 인터파크 1544-1555 YES24 1544-6399
공연문의 컬처마인 1566-1588

‘음원깡패’라 불리는 치타, 배치기, 이정 등을 비롯해 실력파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하는 ‘스페셜 뮤직 페스티벌’(SMF)이 오는 9월 5일과 6일 잠실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

SMF라는 이름으로 처음 개최되는 페스티벌이다. 올해 축제의 라인업은 힙합과 발라드 등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실력을 입증받은 아티스트들을 한 데 모았다.

다이나믹 듀오, 배치기, 매드클라운, 치타, 형돈이와 대준이, 몬스타엑스 등 현재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는 힙합 아티스트들부터 이정, 하동균, 노을, 황치열 등 리드미컬한 보컬과 발라드까지 자타공인 최고의 보컬리스트들이 무대에 오른다. ‘나는 가수다’,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쇼미더머니’,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 각종 음악 프로그램에서 실력을 입증받은 이들이다.

특히 이들 중 치타, 배치기, 이정 등은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컴백한 8월의 음반 대란 속에서도 음원차트 상위권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음원깡패’라 불리고 있다.

치타는 앨범 ‘마이 넘버’ 공개 직후 주요 음원 차트 상위권에 단숨에 진입하며 여성 솔로 래퍼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다.

2년 7개월의 공백기를 뚫고 최근 새 앨범을 발표한 힙합그룹 배치기 역시 EXID의 솔지가 보컬 피처링으로 참여하면서, 배치기의 전매특허인 속사포랩과 솔지의 탄탄한 가창력이 더해져 각종 음원사이트에서 상위권에 진입했다.

이정은 앨범을 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면가왕에서 ‘나를 슬프게 하는 사람들’, ‘흐린 기억 속의 그대’ 등의 음원이 상위권에 올라오며 가왕으로서의 면모를 드러냈다.

주최측 스페셜원컴퍼니 관계자는 23일 “이번 콘서트를 시작으로 매해 새로운 라인업으로 SMF를 개최해 명실공히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오르는 명품 페스티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달 5일 오후 6시 시작하는 첫 공연은 다이나믹듀오, 치타, 매드클라운, 몬스타엑스, 배치기, 형돈이와 대준이 등이 무대에 오른다. 6일 오후 5시에 시작하는 두번째 공연에는 이정, 하동균, 노을, 황치열 등이 출연한다. 인터파크와 예스24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병아리를 부탁해

◆ KBS2 ‘안녕하세요’

오후 11시15분

세 자녀를 둔 30대 주부는 남편의 극성 맞은 자식사랑 때문에 이혼까지 결심했다며 고민을 털어놓는다.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자식은 바로 병아리였다. 가족을 뒷전에 둘 정도로 병아리에 지극정성을 쏟는 남편을 고발한다. 헬스장에서 일하는 20대 남자 트레이너는 사장님이 직원들에게 막무가내로 춤을 강요한다며 하소연한다. 춤을 못 추면 구박하는 것도 모자라 월급까지 차감한다는 고백이 이어진다.

◆ JTBC ‘냉장고를 부탁해’

오후 9시40분

‘국민할매’ 김태원의 냉장고가 공개된다. 보고픈 가족을 소환하는 ‘그리워하면 언젠가는 만나게 되는 동남아 요리’ 대결이 펼쳐진다. 태국 요리 전문점 CEO 홍석천과 필리핀 유학파 이원일이 맞붙는다.

◆ MBC ‘MBC스페셜’

오후 11시15분

‘머슬녀 전성시대’편이 방송된다. 남성미의 상징이었던 근육을 여성들도 탐하기 시작했다. 2015년 변화하고 있는 대한민국 여성미의 기준을 통해 새로운 여성상을 만나본다.

◆ JTBC ‘비정상회담’

오후 11시

연예계 대표 ‘식신’ 정준하가 스튜디오를 찾는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정준하와 평행이론을 가지고 있다는 기욤 패트리와의 놀라운 인연을 공개한다.

/정리=하희철 기자 hhc@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4일 (월)

KBS1	KBS2	MBC	SBS	JTBC	MBN	tvN	channel J
05:00 KBS 뉴스 05:10 KBS 걸작 다큐멘터리 (재)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KBS 미래포럼 개막식 11:20 별별가족 11:25 행복한 지도 (재) 11:55 바른말 고운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그래도 푸르른 날에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별난 며느리 (재)	05:00 MBC 뉴스 05:10 특선 사람, 산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05:00 SBS 5 뉴스 05:10 SBS 특선 다큐멘터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재) 07:00 아웅다웅 동화나라 시즌2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10 김제동의 톡투유 (재) 10:25 냉장고를 부탁해 (재) 11:40 투유 프로젝트 슈가맨을 찾아서 (재)	05:50 천기누설(재) 06:50 굿모닝 MBN 08:00 아침의 창 매일경제 09:20 뉴스파이터 10:30 전국네트워크뉴스 10:40 속풀이쇼 동치미 (재) 11:50 아궁이 (재)	05:20 Let 미인 5 (재) 06:00 코미디 빅리그 꿀잼 에디션 (재) 06:30 집밥 백선생 (재) 07:50 삼시세끼 (재) 09:40 울지 않는 새 10:30 삼시세끼 정선편 (재)	05:00 식신로드 06:00 신수지의 white 돗토리 07:00 앨리스의 가시 08:00 연애시대 08:50 수수께끼의 전학생 10:00 용감한 기자들 11:00 WOMAN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녹화중계 국회 인사청문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15:55 튼튼생활체조 (재)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시간을 달리는 TV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생생정보 스페셜 15:05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콩다콩 16:30 별별가족 (재) 16:35 동물의 세계 16:55 1 대 100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중계방송 국회인사청문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13:10 꾸러기 식사교실 13:40 똑?똑! 키즈스쿨 스페셜 14:30 와일드 패밀리(재) 15:10 타스의 풀이풀이 사자성어 15:40 문화사색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순간포착 스페셜 14:00 네트워크 현장! 고향이 보인다 15:1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16:30 내 마음의 크레파스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꿈의 라이브 프리즘스톤	13:2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3:0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4:1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15:30 뉴스 BIG 5 16: 50 뉴스&이슈	13:20 오 나의 귀신님(재) 15:00 문제적 남자 (재) 16:30 코미디 빅리그 17:50 삼시세끼 정선편 (재)	12:00 연애시대 12:5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14:00 앨리스의 가시 14:55 해피라이프 16:00 Wonderful 일본 여행 16:50 수수께끼의 전학생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30 우리말 겨루기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가요무대 23:00 KBS 뉴스라인 23:40 TV, 책을 보다	18:00 KBS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19:50 오늘부터 사랑해 20:30 생생정보 20:55 위기탈출 넘버원 22:00 별난 며느리 23: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24:3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55 특파원 현장보고 (재)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화정 23:15 MBC 다큐스페셜 24:15 MBC 뉴스 24 24:35 세계육상선수권대회 하이라이트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생활의 달인 22:00 미세스캅 23:15 힐링캠프 500인 24:35 나이트라인	18:30 연쇄쇼핑가족 (재) 19:55 JTBC 뉴스룸 21:40 냉장고를 부탁해 23:00 비정상회담 (60회) 24:30 라스트 (재)	18:10 MBN 뉴스와이드 19:40 MBN 뉴스 8 20:40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재) 21:50 남심북심 한솥밥 23:00 고수의 비법 황금알 24:40 고수의 비법 황금알 (재)	19:40 리틀빅 히어로(재) 20:40 명단공개 21:40 집밥 백선생(재) 23:00 막돼먹은 영애씨 14 24:20 더 지니어스: 그랜드 파이널 (재)	18:00 WOMAN 19: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0:00 연애시대 20:55 김정민의 러블리 돗토리 22:00 하나사키마이가 잠자코있지않아 S1 23:05 위자료 변호사 24:00 긴급취조실

강정호, MLB 진출 후 첫 멀티홈런 '꽝꽝'

<11·12호>

동점·역전포 쏘아올려 데뷔시즌 100안타 달성

23일(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경기. 피츠버그의 강정호가 5회말 선두타자로 나서 솔로 홈런을 쳤다. /AP 연합뉴스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가 미국 프로야구 진출 이후 처음으로 멀티 홈런(한 경기에서 2개 이상의 홈런을 기록하는 것)을 달성했다.

강정호는 23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PNC 파크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해 시즌 11호와 12호 홈런을 연달아 기록했다.

지난 14일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전 이후 9일 만에 4번 타자로 나선 강정호는 0-1로 뒤진 5회말 선두 타자로 타석에 들어섰다. 샌프란시스코 우완 선발 마이크 리크의 5구째 91마일(146㎞)짜리 싱커를 공략해 중월 홈런을 터뜨렸다. 시즌 11호 홈런으로 비거리는 135m다. 강정호의 홈런은 이날 피츠버그가 리크를 상대로 얻은 첫 안타였다.

이어 강정호는 1-1로 맞선 7회말 바뀐 투수 헌터 스트릭랜드를 상대로 비거리 139m의 좌중월 솔로 홈런을 쳤다. 이로써 메이저리그 진출 첫 멀티 홈런을 쏘아 올렸다. 이 홈런으로 메이저리그 데뷔 첫 해 100안타도 달성했다.

강정호는 지난달 29~30일 미네소타 트윈스전에서 이틀에 걸쳐 연타석 홈런을 친 적이 있다. 하지만 한 경기에서 연타석 홈런을 친 것은 처음이다.

앞서 강정호는 2회말 첫 타석에서 유격수 땅볼로 물러났다. 4회말 2사 1루에서 타석에 들어섰지만 2볼-2스트라이크에서 1루 주자 앤드루 매커천이 도루에 실패하면서 이닝이 전환됐다. 이어 5회말 선두타자로 나와 홈런포를 쐈다.

강정호는 이날 3타수 2안타(2홈런) 2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87에서 0.290(345타수 100안타)으로 상승했다.

피츠버그는 9회말 스탈링 마르테의 끝내기 솔로포로 3-2로 승리했다. 이날 피츠버그가 친 안타는 4개에 불과하며 이 중 2개가 강정호의 홈런이다.

경기가 끝난 뒤 미국 언론은 강정호의 멀티 홈런에 대해 극찬을 보냈다. 피츠버그 지역 매체 '피츠버그 포스트 가젯'은 강정호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쏘아 올린 동점포와 역전포를 조명하며 "홈 관중을 기립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다른 현지 매체인 'DK 온 피츠버그 스포츠'는 이날 경기 전 클린트 허들 피츠버그 감독이 "강정호는 믿기 어려울 만큼 잘하고 있다. 환상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지난 22일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농구 2015 KCC 프로아마 최강전에서 고려대를 꺾고 우승을 차지한 고양오리온스 선수들이 경기가 끝난 뒤 함께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상승세 오리온스, 프로농구 우승 노려

프로아마농구 최강전 우승 모비스 선전, LG·삼성 불안

프로농구 2015-2016시즌 개막이 3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22일 막을 내린 프로아마농구 최강전을 통해 올해 프로농구 시즌의 판세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프로아마농구 최강전에서 우승을 차지한 고양 오리온스는 일찌감치 2015-2016시즌 우승 후보로 낙점됐다. 그만큼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기 때문이다.

오리온스는 네 경기를 치르면서 평균 득점이 90.5점, 평균 실점은 65점을 기록했다. 평균 점수 차가 25점이나 났다. 65-87, 22점 차로 패한 서울 삼성이 오리온스를 상대로 가장 적은 점수로 진 것이다.

애런 헤인즈와 조 잭슨으로 이뤄진 외국인 선수 조합도 합격점을 받았고 새로 영입한 문태종의 기량도 40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여전했다. 또 약점으로 지적된 가드진에서는 정재홍이 비시즌 기간 일취월장한 모습을 보였다.

4년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울산 모비스의 선전도 눈에 띈다. 우승 주역인 리카르도 라틀리프와 문태영이 나란히 삼성으로 이적해 전력 누수가 우려됐지만 4강까지 진출했다. 고려대와의 준결승에서도 3점 차로 분패했다.

반면 창원 LG와 서울 삼성은 불안한 모습을 보여줬다. 문태종이 이적하고 데이본 제퍼슨이 퇴출된 LG는 첫 경기에서 서울 SK에 73-90으로 크게 졌다. 지난 시즌 최하위인 삼성은 문태영과 라틀리프를 영입하고도 첫 판에서 오리온스에 완패해 아직 정비가 덜 된 모습을 보였다.

한편 2015-2016시즌 초반은 국가대표 차출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3일까지 중국 후난성 창사에서 아시안선수권대회가 열려 개막 후 3주 정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리그 경기에 나올 수 없다.

김태술과 하승진(이상 전주 KCC), 박찬희와 이정현(이상 안양 KGC 인삼공사) 등 두 명씩 빠져나간 팀들이 있는 반면 전자랜드는 대표팀 차출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장병호 기자

남자 경보 김현섭, 또 한 번의 신기록

韓 육상 최초 세계선수권 3회 연속 톱10 진입

한국 남자 경보의 간판스타인 김현섭(30·삼성전자·사진)이 한국 육상 사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3회 연속 톱10에 진입했다.

김현섭은 2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5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남자 20㎞ 경보에서 1시간21분40초를 기록해 10위에 올랐다. 그는 2011년 대구 대회에서 6위, 2013년 모스크바 대회에서 10위를 차지한 바 있다.

이날 경기에서 김현섭은 1시간21분43초를 기록한 르보강 샹지(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추격을 따돌리며 10위로 결승선을 통과했다. 이로써 한국 육상 최초로 세계선수권대회 3회 연속 톱10 진입의 신기록을 세우게 됐다.

또한 남자 경보 차세대 주자인 최병광(24·삼성전자)은 1시간28분01초로 46위에 올랐다.

이날 경기에서 우승은 스페인의 미겔 로페즈가 차지했다. 1시간19분14초로 개인 최고기록을 세웠다. 중국의 왕전은 1시간19분29초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장병호 기자

프리메라리가 화려한 개막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개막전 첫 승

23일(한국시간) 열린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015-2016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라스팔마스의 개막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앙투안 그리즈만(왼쪽)이 골을 넣은 뒤 동료들과 기뻐하고 있다. 이날 경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1-0으로 승리했다. /AP 뉴시스

스페인 프로축구 프리메라리가 2015-2016시즌이 22일(이하 한국시간) 개막했다.

시즌 개막전으로 스페인 말라가에서 열린 세비야FC와 말라가의 개막전은 두 팀이 0-0으로 비겼다.

23일 열린 경기에서는 2013-2014시즌 우승팀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첫 승을 따냈다. 라스팔마스와의 홈 경기에서 전반 16분 앙투안 그리즈만의 결승골을 지켜 1-0으로 이겼다.

또한 에스파뇰도 헤타페를 1-0으로 꺾고 시즌 출발을 상쾌하게 맞이했다.

지난 주말 개막한 스페인 프리메라리가는 내년 5월 15일까지 팀당 38경기를 치르게 된다. 지난 시즌 우승팀 FC바르셀로나는 24일 아틀레틱 빌바오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있다.

FC바르셀로나는 지난 18일 끝난 수페르코파 결승에서 아틀레틱 빌바오에 패해 우승컵을 내준 바 있다. 리그 개막전에서 설욕을 노린다.

레알 마드리드는 24일 스포르팅 히혼과 시즌 1차전을 갖는다. /장병호 기자

KT is busy copying the services of its competitors

KT,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 한창

Communicative enterprise KT (CEO Hwang Chang-Gyu) is busy copying the services of its competitors such as mobile-wallet, navigation system and so on.

SK planet, a subsidiary company of SK Telecom that is dominating the market, is trying to make an app similar to 'T Map', a mobile navigation, and 'Syrup', a mobile wallet, but the market is not so excited about it.

According to communicative businesses on the 20th, KT launched its mobile wallet called 'Clip' with the name of "the first in the country" on the 18th.

KT 황창규 회장

But if you take a close look at it, 'a copy of a competitor's service' would better describe the service than 'the first in the country'.

Syrup, a mobile wallet that SK Planet released last year, now secured fifty thousand affiliated stores based on 14million members.

The company is focusing on linking the 14million members on the app Syrup to its family apps such as Syrup Pay(simple payment),Syrup Ad(advertisement),Syrup order(advance payment service) and etc.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통신사업자 KT(회장 황창규)는 요즘 모바일 지갑, 내비게이션 등 경쟁사 서비스 베끼기에 한창이다.

이미 시장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의 자회사 SK플래닛의 모바일 지갑 '시럽', 모바일 네비게이션 'T맵'과 같은 서비스를 유사하게 만들어 1위 사업자를 따라간다는 방침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랭하다.

2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KT는 모바일 지갑 클립을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을 걸고 출시했다.

하지만 서비스 내용을 따져보면 '국내 최초' 서비스가 아닌 '경쟁사 서비스를 베낀' 서비스란 표현이 정확해 보인다.

SK플래닛이 지난해 출시한 시럽(Syrup)월렛은 현재 가입자 1400만 명을 기반으로 가맹점 5만 곳을 확보했다.

시럽에 모인 1400만 명을 패밀리앱인 시럽페이(간편결제)·시럽애드(광고)·시럽오더(선주문서비스) 등으로 연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SUDOKU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2				8	4	3		
4	8				2		9	
	1	9						
6			7		1		2	
5								9
	4		3		9			7
						9	5	
	2		6				8	3
		5	4	1				6

	4			5				6
8		6	7				4	
7			9				2	1
	2		5		3	6		
				8				
		8	2		9		1	
6	3				8			2
	7				6	5		3
2				7			6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스도쿠 정답

2	5	7	9	8	4	3	6	1
4	8	6	1	3	2	7	9	5
3	1	9	5	6	7	8	4	2
6	9	3	7	4	1	5	2	8
5	7	1	8	2	6	4	3	9
8	4	2	3	5	9	6	1	7
1	6	8	2	7	3	9	5	4
7	2	4	6	9	5	1	8	3
9	3	5	4	1	8	2	7	6

9	4	2	8	5	1	7	3	6
8	1	6	7	3	2	9	4	5
7	5	3	9	6	4	8	2	1
4	2	7	5	1	3	6	9	8
3	9	1	6	8	7	2	5	4
5	6	8	2	4	9	3	1	7
6	3	5	1	9	8	4	7	2
1	7	9	4	2	6	5	8	3
2	8	4	3	7	5	1	6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언제쯤 결혼할 수 있을까요?
조각계통 종사자와 2019년 인연

싱글 걸 짱 여자 81년 7월 19일 양력 22시경

Q 선생님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주 속으로'를 재미있게 보고 있는 애독자 입니다.

저는 아버님이 하시던 불교서점과 용품점을 인계받아 하고 있습니다. 크게 돈을 버는 것은 아니고 그저 평범하게 생활하는 정도입니다. 가게의 임대료를 안내고 장사를 하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결혼 이야기만 나오면 저는 콤플렉스를 건드리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미팅을 하거나 선을 볼 때 친구와 같이 나갈 때도 있으며 지인의 소개로 남자를 만나지만 저와는 인연이 안 되기 일쑤입니다. 언제쯤 고민이 해결 될까요?

A 우리는 보통 하는 말로 '팔자소관'이라던가 '호랑이는 피할 수 있어도 사주팔자는 속일 수 없다'는 말을 합니다.

귀하 성정은 '높은 산'에 천문(天門)이 들어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고 일면 비현실주의로 속세를 떠나고 싶은 성향을 비칠 때가 있는데 완고하며 책임의식이 강하며 행동이나 마음에 시비가 분명합니다.

귀하가 결혼을 늦게까지 하지 못한 것도 사주에 있는 대로이므로 인생이 꼬이지 않고 복잡하게 이어지지 않음을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현재 하고 있는 일도 사주에 천문성이 있으며 그것은 종교성이 있는 것이므로 귀하의 천직이 되는 것 입니다.

신약한 사주팔자 구성에서 무토(戊土)일간에 배우자를 나타내는 관성(官星)이 묘지(墓地)에 들어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형살(刑殺:형벌을 받듯이 흉함)을 맞고 있어서 결혼의 연분이 되지 않습니다. 관성에 형살이라 함은 남자가 결혼 후 불상사를 당하지 않으려고 선을 봐도 성혼에 이르지 않는 기운이 내포돼 있다고 고서에는 알려줍니다.

결혼 시기는 2019년 되겠으며 참고해야 할 것은 선을 보러 나갈 때는 혼자 가야지 친구와 동행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결혼 운이 오기 전에 사귀거나 만나는 이성이 있을지라도 사주에 들어 있는 묘궁(墓宮)과 형살의 영향으로 결혼생활에 장애가 많이 일어나게 됨을 유념해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하시는 것이 부부간에 큰 불화를 피해가는 좋은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조각계통에 종사하는 배우자를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한 그러한 배우자라면 서로가 마음이 잘 통하게 될 것이며 부부로서 가정을 영위해 나가는데 풍요롭고 화목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8월 24일 (음 7월 11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혼자의 힘으론 해결 할 수가 없습니다. **60년생** 친구에게 고민을 얘기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72년생** 남쪽에 귀인이 있습니다. **84년생**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면 길합니다.

49년생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61년생** 공연한 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겠습니다. **73년생** 땅을 파서 금을 캐내니 마침내 형통할 운입니다. **85년생** 집에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50년생 어떠한 이유로든 여행을 떠나세요. **62년생**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74년생** 좋다면 무조건 밀고 나가세요. **86년생** 취업을 하려면 남쪽에 원서를 내세요.

51년생 화술이 뛰어나니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63년생** 조바심이 날 수 있습니다. **75년생** 구설수를 많이 듣게 되니 주의하세요. **87년생** 오래 시간을 끌수록 불리합니다.

52년생 주위의 유혹이나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64년생** 운의 흐름이 점점 좋아집니다. **76년생** 지금의 상황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88년생** 지금보다 어려운 일이 더 많을 것입니다.

53년생 푸른 소나무와 대나무는 그 절개를 잃지 않습니다. **65년생** 애정운이 좋습니다. **77년생** 반드시 뜻을 이룰 것입니다. **89년생** 저녁약속을 나가면 귀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54년생 재물 운이 좋으니 사소한 계획도 성공합니다. **66년생** 주변 사람들이 모두 나를 이롭게 합니다. **78년생** 기분좋은 하루를 보냅니다. **90년생** 서두르거나 당황하면 손해를 봅니다.

55년생 구설수에 오르게 됩니다. **67년생** 환경을 바꾸지 말고 자중함이 좋을 것입니다. **79년생** 노력의 대가를 얻게 됩니다. **90년생** 주변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됩니다.

56년생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합니다. **68년생** 여행은 피하세요. **80년생** 가족이 기쁜 소식을 알려옵니다. **92년생** 급해도 신중히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57년생 나의 뜻과 맞지 않다고 바로 포기하지 마세요. **69년생** 나아가려 할수록 더욱 어려워지는 형상입니다. **81년생** 동방향이 길방입니다. **93년생** 오래 가지고 있던 고민이 해결됩니다.

58년생 모든 것이 길합니다. **70년생** 직장내에서 승진운이 있습니다. **82년생** 대중교통 이용에 주의하세요. **94년생** 건강하던 사람이 아프면 병이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59년생 일들이 조금씩 원만하게 풀려 나갑니다. **71년생** 본업에 충실하는 것이 좋습니다. **83년생** 본인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95년생** 이성과 행복한 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무형문화재 지정만 하고 지원은 뒷전

최치선의 세상만사

"문화재로 지정만 해놓고 관리를 안 해요. 지자체에서도 중앙정부에서도 장인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판매가 이뤄지지 않으면 생계가 막연해지는데 이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것이죠. 평생을 바쳐 전통을 계승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계걱정은 덜어줘야 하는게 맞잖아요."

지난달 휴가 중 고향 전주에서 아는 분의 소개로 중요무형문화재 선자장 128호인 김동식 씨를 만났다. 그는 "정부로부터 지정된 장인들이 작업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식 선자장은 또 "그렇지 않으면 지금처럼 하나 둘 돈 되는 일을 찾아 떠나고 남아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무형문화재의 지원에 구멍이 뚫린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들이 전통문화를 전수하고 복원하는 작업에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요무형문화재보다 지방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더욱 열악하다.

전북의 경우 '2015 무형문화재 전수활동비는 무형문화재 개인이 월 80만원, 단체는 월 60만원 지급된다. 또 일 년에 한번 지급하는 공개행사비도 개인 250만원과 단체 340만원에 불과하다.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지원은 아예 빠졌다. 전수조교 지원이 없는 곳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북이 유일하다. 다른 지역 전수조교는 25만원에서 6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렇게 전북 외에도 전국의 지자체에서 지정된 무형문화재들은 지원금만으로 생활과 작업을 병행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다.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의 경우 일반은 월 131만원과 취약계층은 월 171만원으로 분류해 지원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는 1962년1월10일 법률 제961호에 따라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지정되기 시작했다. 국가에서 조사·지정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라 하고, 시·도에서 조사·지정한 것을 '시·도 무형문화재'라 한다. 두 분야 모두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한 문화재로 현재 문화재청에 등록된 중요무형문화재는 개인 68종목과 단체 64종목으로 총 132종목에서 171명의 보유자가 활동하고 있다. 이들 외에 명예보유자가 30명이고 보유자한테서 교육을 받고 있는 전수교육자는 295명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무형문화재' 제도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세계인들의 문화유산으로 크게 각광 받을 수 있다. 한국의 문화재는 곧 세계 속의 문화재로 그 위상이 매우 높아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제도를 운영하고 활용하는 데 앞서 김동식 선자장의 지적처럼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아 개선이 시급하다. 중요무형문화재와 지역 시도 무형문화재의 지원격차도 크다. 이에 대한 현실적 지원책이 따르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러한 격차는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요무형문화재엔 매년 의료 급여, 학점 인정, 장례·입원 보조금, 특별지원금, 공개 행사 지원, 전승자 작품전 지원 등 무려 15~18가지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반면 시·도 지방문화재에겐 한두 가지 정도의 제한적 지원을 하고 있다.

무형문화재와 관계자들은 정부가 하루빨리 이러한 지원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금처럼 장인, 명장, 무형문화재관리에 소홀하면 결국 우리의 소중한 전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번 사라진 전통문화는 복원이 불가능하다. 정부는 수대에 걸쳐 이어져 온 장인들의 노하우는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대가 끊어지면 되살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사회부장

社說

우리 자신을 위한 남북한 평화

남북한이 모처럼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일촉즉발의 위기에 빠져든 가운데 22일 저녁부터 판문점에서 10시간동안 '무박2일'의 마라톤 접촉을 진행한 것은 일단 고무적인 일이다. 장시간 회담에도 완전한 결론을 얻지 못해 정회했다가 회담을 재개한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남북한 모두 최고통수권자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고위급 인사들이 마주앉은 것도 주목을 끌기에 충분하다.

지금 국내외 경제상황은 몹시 어렵다. 특히 외부여건이 나쁘다.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과 중국의 성장감속과 위안화 평가절하 등이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남북한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 국내외 투자자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1일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이 4421억원어치의 주식을 팔아치웠다. 외국인들은 최근 2주동안 대략 2조원어치를 처분했다. 개인투자자도 앞다퉈 주식을 내다팔았다. 남북한 관계의 파국에 대한 공포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가신인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 국내 채권과 주식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은 대략 500조원으로 추산된다. 남북관계가 이 시점에서 심각하게 악화되고 무력충돌이라도 벌어지면 국가신인도는 더욱 나빠지고 외국인 투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우려가 크다. 그러면 국내 증시와 외환시장에 대혼란이 초래된다. 국내 금융사들이 해외에서 대출만기연장하는 데도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지 않다. 한마디로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사태가 닥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지금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리지 않기 위해서는 남북한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유지돼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무력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억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당장 통일이나 교류협력은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무력충돌만은 없어야 한다. 모든 문제를 대화로 풀어야 한다. 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은 바로 대한민국 경제와 국민의 생활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변호사들, 고객권리부터 인지해야

기자 수첩
유 선 준
<사회부>

대법관 출신 A변호사는 상고이유서에 찍는 자신의 도장을 다른 변호사들에게 빌려줄 때마다 3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대법관 출신 이름이 새겨진 도장을 빌려 대법관들이 보는 상고이유서에 날인하면 도장을 빌린 변호사가 맡은 사건을 좋게 봐준다는 업계 풍조가 만들어 낸 폐단이다.

로스쿨 출신 B변호사는 소액사건을 맡아 달라고 찾아온 의뢰인에게 소액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말해 의뢰인과 말싸움을 벌였다. 변호사에게 떨어지는 돈이 적어 소액사건 수임을 탐탁치 않게 보는 업계 풍조가 이 또한 만든 결과다. 두 사건 모두 최근에 일어난 일이다.

한편에선 올해 대법원이 내린 '변호사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무효' 판결의 여파로 밥그릇을 잃는 것아니냐는 불안감이 업계에 조성됐다. 심지어 가사사건의 성공보수도 무효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노파심까지 나온다.

업계 불안감과 불만이 고조되자 대한변호사협회는 "대법원 판결은 계약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라며 즉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표면상으론 응당 변호사의 권리를 찾기 위해 투쟁하는 듯하다. 하지만 위 사례들과 같이 폐단이 난무하고 수임료 차이 때문에 차별을 받는 상황에서 법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대다수가 이번 업계의 대응을 두고 밥그릇 싸움보다 정의를 위한 투쟁으로 볼진 생각해 볼 일이다.

현재 값싸고 질좋은 법조 서비스를 만든다는 취지로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시행돼 변호사가 쏟아지지만 수임료가 예나 지금이나 비싸고 법조 서비스도 그대로다.

사건 성공보수금을 받는 게 법적 근거도 아닌 관행인데, 환경이나 서비스까지 별볼일 없는 것이다. 변호사들 권리는 찾는데, 값싸고 질좋은 법조 서비스를 받아야 할 소비자인 의뢰인의 권리를 지켜주지 않는 것 만큼 모순된 상황이 있을까.

이론적으로 변호사는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법조 3륜(판사·검사·변호사) 중 하나라고 한다. 변호사도 돈을 받고 하는 일이라 법조 3륜만 고집할 순 없지만 그들의 관행을 유지시켜주는 건 의뢰인과 법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65세 이상 노인 고기 섭취 부족

소비자 119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층이 고기를 하루 권장섭취량보다 적게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국대 식품영양학과 문현경 교수(한국영양교육평가원장)는 한국 65세이상 노인 83%이상이 하루 권장 고기섭취량(93.4g)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회장 박태균)이 열린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간담회에서다.

문 교수는 "65세 이상 여성의 91.2%는 하루 육류 섭취 권장량인 51.4g를 섭취하지 않고 있었으며 같은 연령대 남성 역시 83.9%가 하루 육류 섭취 권장량(93.4g)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2010~2012 국민건강영양조사 대상자 1만7460명(남성 7355명, 여성 1만105명)을 분석한 결과 3분의 2가 넘는 1만2682명(72.6%)이 육류를 하루 섭취권장량보다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 교수는 설명했다.

그는 남녀의 적정 단백질 섭취량, 하루 칼로리 섭취량, 식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별 하루 육류 섭취 권장량을 산출했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합쳐 하루에 93.4g 이상은 고기를 먹어야 한다는 권고안이다. 그러나 우유, 계란 등은 제외됐다.

문 교수는 "빈혈은 생리불순 등의 증상을 동반해 임신을 힘들게 할 뿐 아니라 임신 후 태아의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노인에게는 기억력 감퇴 등 신경학적 증상을 일으킨다"며 "철분이 풍부한 육류 섭취를 통한 빈혈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인사

■ 통일부
△과장급 전보 ▲통일교육원 교육개발과장 여상기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관리후생과장 이봉기

■ 국토교통부
▲정보화통계담당관 김영현 ▲강릉국토관리사무소장 강종원

■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3급(지방소방준감) 승진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장 김학준 △3급(지방소방준감) 전보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장 민목영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 우병호 △4급(지방소방정) 승진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장 박찬호 △4급(지방소방정) 전보 ▲강북소방서장 박세식 ▲강남소방서장 이영팔

3개점 아이스크림 창업가능

SM아이스크림 검색

놀이공원, 극장, 대형마트, 리조트, 편의점, A급상권매장

- 비용지출 없는 무조건 수익만 발생하는 사업
- 2가지 10종 아이스크림으로 소비자 선택이 다양
- 인테리어, 시설비, 보증금, 권리금, 초기투자 일체 “없다”
- 운영중 인건비, 임대료, 공과금, 추가투자 일체 “없다”
- 상품대비 최저 소비자가 판매 및 공급으로 높은 수익
- 매장을 직접운영하는 시간투자, 노동력투자 “없다”
- 매출부진시 즉시 타매장 이동으로 쉽게 수익변화

오리지날바닐라마카롱

스트로베리가든마카롱

게르만쵸컬릿마카롱

쿠키앤크림마카롱

소프트그린티마카롱

프렌치바닐라마카롱

A급 상권의 다양한 판매영업점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리조트, 편의점, 찜질방, 스파, 극장, 수영장, 유원지, 캠핑장, 야구장, 축구장, 기타경기장, 박물관, 대형쇼핑몰, 공원매점, 공연장, A급상권의 커피전문점, 키즈카페, 테이크아웃 가능한 유동인구 많은 모든 영업점

열대과일(망고, 코코넛, 구와바, 파인애플) **100%**

원액 ‘맛’이 다른 세계적인

아이스크림 센세이션

smooze!

전문창업, 부업, 투잡, 제테크

2개 브랜드 10여종 명품 아이스크림 복합판매 / **상담문의 02-2247-9383**